

# 로마자 표기 현황 실태 분석

2007.

대구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로마자 표기 현황 실태 분석”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7년 12월 30일

연구 책임자: 손중선  
대구교육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연구 기관: 대구교육대학교

연구 책임자: 손중선

공동 연구원: 허철구

## 머리말

오늘날 국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릴 일도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국어를 표기하는 또 하나의 수단인 로마자 표기법의 중요성도 더욱 커져만 간다고 할 것이다. 다소 과장하여 말한다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한글 창제에 버금가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로마자 표기법은 처음 제창된 이래로 100여 년이 넘도록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여 왔다. 온갖 공을 들여 표기법을 마련하여도 십수 년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개정되는 운명을 되풀이하여 왔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 지난 2000년에 고시되었으나 지난 역사를 생각한다면 그 정착 여부를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하는 일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개정에 뒤따르는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거니와, 잦은 개정에 따른 국가 위신의 문제, 사용자들의 혼란과 불편함 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행 표기법의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불필요한 개정 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표기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다. 현행 표기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이 개정의 논의로 이어질 여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표기법의 안정과 정착을 소망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개정 불가라는 전제를 앞세우는 것은 올바른 연구 태도가 아니기에 가능한 한 객관적인 시각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 보고서가 현행 표기법에 대한 평가와 혹 있을지도 모를 개정 논의에서 합리적인 시각을 제공해 주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07. 12.

책임 연구원 손중선

## □ 목 차 □

I. 서론 .....	1
1. 로마자 표기법 약사(略史) 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3. 연구 내용 6	
II. 모음 표기 평가 기준과 방향 .....	8
1. 모음 표기의 평가 기준 8	
2. 모음 표기 검토 방향 11	
III. 로마자 표기의 통계적 분석 .....	29
1. 로마자 모음 표기 빈도 조사의 목적과 의의 29	
2. 자료 30	
3. 분석 방법 33	
4. 자료 분석의 실제 34	
5. 분석 결과의 종합적 고찰 65	
IV. 로마자 표기의 인식 실태 분석 .....	74
1. 연구 대상 74	
2. 분석 방법 75	
3. 분석 결과 78	
IV. 결론 및 제언 .....	119
1. 결론 119	
2. 제언 122	
참고 문헌	126

## 표 차례

<II-1> 김복문(1996) 모음 표기안	22
<II-2> 양병선(2001) 모음 표기안	24
<III-1> 출현 가능한 1개 또는 2개 모음의 유형	35
<III-2> 각 모음의 출현 빈도	37
<III-3>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	38
<III-4> 모음 연쇄의 출현 비율	39
<III-5>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y, w 개입 유형 제외)	40
<III-6> 모음 연쇄의 출현 비율(y, w 개입 유형 제외)	40
<III-7> 각 모음의 출현 빈도	43
<III-8>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	44
<III-9>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y, w 개입 유형 제외)	44
<III-10> 모음 연쇄의 출현 비율(y, w 개입 유형 제외)	45
<III-11> 각 모음의 출현 빈도	47
<III-12>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	48
<III-13>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y, w 개입 유형 제외)	48
<III-14> 모음 연쇄의 출현 비율(y, w 개입 유형 제외)	49
<III-15> 각 모음의 출현 빈도	52
<III-16>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	52
<III-17>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y, w 개입 유형 제외)	53
<III-18> 모음 연쇄의 출현 비율(y, w 개입 유형 제외)	53
<III-19> 각 모음의 출현 빈도	54
<III-20> 행정구역 단위 분포	55
<III-21> 각 모음의 출현 빈도(구역단위명 제외)	56
<III-22>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	57

<III-23>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y, w 개입 유형 제외)	59
<III-24> 모음 연쇄의 출현 비율(y, w 개입 유형 제외)	61
<III-25> 연령 및 성별 인명 자료 수	62
<III-26> 각 모음의 출현 빈도	63
<III-27>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	64
<III-28>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y, w 개입 유형 제외)	64
<III-29> 모음 연쇄의 출현 비율(y, w 개입 유형 제외)	65
<III-30> 각 모음의 출현 빈도	66
<III-31>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	67
<III-32>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y, w 개입 유형 제외)	69
<III-33> 모음 연쇄의 출현 비율(y, w 개입 유형 제외)	72
<III-34> 모음 글자의 출현 빈도	72
<IV-1> 자문 외국인 의견 조사 양식	76
<IV-2> 음절별 붙임표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교	82
<IV-3> 음절별 붙임표 사용 및 두 줄 표기 용례	83
<IV-4> 각 음절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했을 때	83
<IV-5> 각 음절 첫 글자 대문자 + 띄어쓰기	84
<IV-6> 첫 음절 첫 글자만 대문자 + 띄어쓰기	84
<IV-7> 세 가지 표기 방식 비교	87
<IV-9> 단음절 철자 구조 유형 분류	90
<IV-10> 1음절-2음절로 분리되는 지명	92
<IV-11> 1음절+2음절로 분리되는 지명(표기 수정)	92
<IV-12> 의미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4음절 지명	93
<IV-13> 2음절+2음절로 분리되는 지명	94
<IV-14> 2음절+2음절로 분리되는 지명(표기 수정)	95
<IV-15> 3음절+1음절로 의미 분리가 되는 지명	97
<IV-16> 분류 개념과 영문 예시	100

- <Ⅳ-17> 지명+갈림길 역명 111
- <Ⅲ-18> 2음절 분류 개념어 역명 112
- <Ⅳ-19> 2음절 9글자 초과 역명 112
- <Ⅳ-20> 모음글자 조합형 표기+(이중)모음 역명 113
- <Ⅳ-21> 로마자-영어 동일 음식명 114
- <Ⅳ-22> 음식명 수정 표기 예시 116
- <Ⅳ-23> 띄어 쓸 것을 권장하는 말 117

## 그림 차례

- <그림 Ⅳ-1> 띄어쓰기와 붙임표 사용 비교 96

# I. 서 론

## 1. 로마자 표기법 약사(略史)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1830년대 이후 서양인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표기되다가<sup>1)</sup> 1939년 머쿤과 라이샤워가 고안한 표기법<sup>2)</sup>이 대표적인 표기법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국어음을 서양인의 음운 체계에서 받아들인 전사법의 표기법으로서, 자음과 모음을 음성 단위까지 정밀하게 표기하는 한편, 어갯점(˙)과 반달표(˘)의 특수부호(diacritics)를 사용한 것이 한 특징이었다.

이후 조선어학회의 ‘조선어음 라마자 표기법’(1940), 이에 반대한 최현배(1942)의 ‘한글을 로마자로 옮겨적기’, 최초의 공식적 정부안인 문교부의 ‘한글을 로오마자로 적는 법’(1948) 등이 차례로 등장하였는데, 각각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지만 이전의 머쿤-라이샤워 표기법과 달리 자음의 경우 특수부호 어갯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모음의 경우 ‘어, 으’의 경우 모두 머쿤-라이샤워 표기법과 동일하게 ‘ö, ü’로 특수부호를 이용하여 표기한다. 여러 모로 차이가 있지만 특수부호에 관한 한 이들 표기법은 자음의 경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음의 경우에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

1) 이 당시 표기는 개국하여 서양인의 입국이 허용된 1880년을 기준으로 전후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880년 이전은 외국인이 국어를 직접 접하기 적기 어려운 시기로서 Siebold(1832), Gutzlaff(1833), Mdehurst(1835), Dallet(1874), Ross(1877), Aston(1878) 등의 표기법이 있으며, 1880년 이후는 서양인들이 직접 국어를 접하고 표기법을 고안한 시기로서 Corée(1881), Ross(1882), Scott(1887), A. L. Baird(1896), Gale(1897), Hodge(1897), Eckardt(1923) 등이 있다.(김민수 1973, 최현배 1961, 도형수 1994 등 참조). 김민수(1973:289)에서 小倉進平(1934)를 인용하여 언급한 바에 따르면 1920년대까지 27개 안의 표기법이 있었다고 한다.

2) 김민수(1973:292)은 이 표기법이 ‘어, 으’는 P. A. Eckard, ‘츠, ㅋ, ㅌ, ㅍ’은 J. S. Gale, ‘ㄱ, ㄷ, ㅂ, ㅈ’는 불어계의 표기법을 혼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한편, 국외에서 만들어진 표기법으로서 Yale(1954, 1968)은 전자법을 기본 원칙으로 삼은 점에 더하여 특수부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표기법과 구분된다. 국내에서 특수부호 사용을 자제한 표기법은 문교부(1959)이다.

문교부(1948)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개정한 표기법인 문교부의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1959)은 Yale 체계처럼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적는 전자법으로서 이전의 표기법과 기본 원칙부터 다르다. 특히 이 표기법은 이전의 ö, ü(어, 으)를 eo, eu로 표기하는 등 특수부호를 없애고 로마자 26글자로만 표기하는 태도를 취하여 현행 표기법의 연원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1959년 표기법이 전면적으로 보급되지 못하고 영미권에서는 종전의 머큐-라이샤워 표기법이 여전히 사용되는 등 불안정성을 보여 80년대 들어 정부가 표기법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1984년 다시 머큐-라이샤워 표기법과 맥을 같이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표기법은 정밀한 음성 표기를 한다는 점, 그리고 다시 자음, 모음 표기 모두에서 특수부호가 부활하였다는 점에서 4,50년대의 다른 어떤 표기법보다 머큐-라이샤워 표기법을 답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영미권에서 머큐-라이샤워 표기법이 통용되는 현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머큐-라이샤워 표기법 체제로 회귀한 이 문교부(1984) 표기법 역시 특수부호 사용 등으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얻는 데 실패하였다. 물론 로마자 표기법의 사용 대상이 외국인이지만, 표기 주체인 한국인들이 그 표기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표기법의 정착을 바라기 어려우므로 정부는 다시 그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이 시기에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하기 어려운 반달표(^)나 어긋점(') 등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큰 불만거리였다. 이들을 정확히 쓰려면 매우 불편하고, 생략할 경우 국어에서 구분되는 정보가 인터넷에서는 구분되지 않아 검색 등 정보 관리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실제 로마자 표기 현장에서 반달표나 어긋점이 생략되는 일이 흔하여 ‘ㄱ, ㄷ, ㅂ, ㅈ’, ‘어, 으’가 ‘ㅋ, ㅌ, ㅍ, ㅊ’, ‘오, 으’와 구별되지 않기도 하였다. 궁극적으로 특수부호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결정적요인인 셈이었는데,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표기법을 준비하게 되고, 그 결과 1997년 전자법을 기반으로 하고 특수부호를 없앤 개정 시안을 내놓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자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여 시행되지 못하였고, 다시 1999년 11월 17일 전자법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개정 시안을 진지한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 수렴을 거쳐 2000년 7월 7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을 확정 고시하였다.

이 표기법은 ‘ㄱ, ㄷ, ㅂ, ㅈ’를 유무성에 따라 구별하지 않고 g, d, b, j로 통일하였다는 점(중성에서는 예외), 유기음 ‘ㄱ, ㄷ, ㅈ’는 k, t, p, ch로 적어 평음과 분명하게 구별하였다는 점, 반달표(˘)와 어긋점(˙)의 특수부호를 없앤 점, ‘어, 으’를 ö, ü 대신 eo, eu로 적는 등 로마자 26글자만 사용한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표기 내용은 1959년의 표기 방식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어, 우리의 로마자 표기법이 순회를 거듭해 왔다는 점을 보여 주기도 한다. 나아가 그만큼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표기법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차선의 표기안일지라도 준수, 보급하는 사용상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 7월 현행 국어 로마자 표기법(문화관광부고시 제2000-8호)이 발효된 지 7년이 넘었다. 특수문자가 포함되었던 이전의 머쿤-라이샤워 표기방식을 탈피하여 컴퓨터 자판에 있는 알파벳만을 사용하여 나름대로의 편의성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던 표기법에서 상당 부분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컨대 ‘어’와 ‘으’는 그전에는 비록 특수문자이긴 하지만 한 글자인 ö와 ü로 표기되었으나 현재는 ‘eo’와 ‘eu’로 표기된다. 된소리 자음 ‘ㄸ’은 tch로 표기되던 것이 이제는 jj로 표기된다. 이런 표기는 국제적으로 낯선 것들이어서 외국인들로서는 음가를 추측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익숙해지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

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물론 이전의 표기법도 여전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그래도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표기법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현행 표기법보다는 덜 혼란스러운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전의 표기법도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기계화(정보화)에 부적합하다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 그것대로 재고의 여지가 있기도 하였다. 결국 어떠한 표기법을 택하든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한 것이고 다만 그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할 뿐이다. 결국 완벽한 표기법이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과 혼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문제 해결도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끊임없는 논쟁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마저 있을 것이다.

현행 국어 로마자 표기법이 발효된 이후 대부분의 안내 표지판이 이 표기법에 따라 바뀌었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안내표지판의 불편성을 지적한 비율이 2003년 23.5%, 2004년 33%, 2005년 31.4%로 꽤 높게 나타났다(한국관광공사 2006).

안내표지판의 불편함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표지판의 글씨가 너무 작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됨으로써 겪는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음절 수가 너무 많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음성표기로 인해 쉽게 읽을 수 없는 불편함도 있을 것이다. 쉽게는 읽을 수는 있으나 실제 요구되는 소리와는 거리가 멀게 발음되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불편함도 있을 것이다. 이들 중 쉽게 읽을 수 없거나 발음이 실제와 크게 달라지는 데서 오는 불편함의 원인은 결국 현행 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기인하는 문제라 해야 할 것이다.

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한번 개정하자면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표기법이 단번에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물론 표기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불완전한 준비, 연구와 실험에서 기인하는 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표기를 읽는 외국인의 다양성이다.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과 영국 사람들조차 표기를 읽는 방식이 동일하지 않다. Gye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고맙게도

‘게’로 읽어 주지만, 어떤 사람은 ‘가이’로, 또 어떤 사람은 ‘기여’처럼 읽는다. 게다가 로마자 표기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표기에 대해서 각 나라 출신들마다 발음이 제각각이다. 결국 영어가 지닌 보편적 발음 성향이라는 것도 중시해야 하지만 일정 정도는 우리가 정한 방식에 따라오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가령 ‘거’는 ‘geo’로 표기되는데, 영어의 발음 성향에 따르면 어두 위치에서는 ‘지오’처럼 발음된다. 하지만 어두 위치가 아니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래서 ‘jugeo’(‘주거’)가 ‘주지오’처럼 발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위치에 따라서 표기를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이것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표기법이 영어권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표기 수단만 로마자일 뿐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문제가 되고 만다.

또 하나는 표기법을 정함에 있어 규칙의 일관성을 제대로 갖추고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단지 일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래서 그 규칙에 따르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성씨로서 ‘강’과 ‘신’은 각각 ‘Gang’과 ‘Sin’이 되어 어감이 매우 좋지 않아 사람들이 싫어한다. 또 이름 중에 ‘식’이 들어가면 ‘Sik’이 되니 영어의 sick(‘병든’)과 같은 소리로 발음하게 되어 싫어한다. 그래서 ‘Kang’, ‘Shin’, ‘Shik’을 고집하는 사람도 많다. 그렇다고 이에 대해 국가에서 정한 규범이니 무조건 따르라고 강제하는 것도 무리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인명의 표기가 어떠한에 따라 개인적으로 따돌림 혹은 그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외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명과 인명 각각에 대해서 영어의 보편적 발음법과 개인의 개별적 입장에 맞추어 원음에 가장 가깝게 발음되도록 표기를 따로따로 정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리자면 사실상 로마자 표기법이 존재할 수가 없다. 표기법을 정한다는 것은 규범을 정한다는 것이고, 규범을 정한다는 것은 예외가 없으면서 모든 지명과 인명 등 표기의 원음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언어학적 규칙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결국 규범을 정하면 그 규범에 따라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원칙은 규칙

과 달라서 불가피한 경우에 관용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원칙에는 ‘숨통을 터주는’ 융통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그 융통성은 사람들의 언어적 삶에 대한 ‘억압’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로마자 표기법은 영어에 없는 발음을 표기해야 하는 어려움에서부터 개인적 삶에 가져다주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요인들을 감안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표기법은 완벽할 수 없으며 다소의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로써 그 부작용을 무시하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끊임없이 조사하고 연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말 로마자 표기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 중 외국 방문객들이 자주 불편함을 호소하는 지명과 인명 등의 로마자 표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조사의 초점은 주로 가독성에 맞추어질 것이며, 따라서 가독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모음 표기와 음절 구성의 관점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다.

### 3. 연구 내용

지명 표기는 외국인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필수적으로 접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안내표지판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만 중에는 우리말 영문표기에 대한 불만도 포함될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2006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용례집』을 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용례집은 크게 전국 관광 지명과 각종 음식명의 로마자 표기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음식명도 포함된다. 나아가 서울메트로(전 서울지하철공사)가 제작한 서울지하철 영문 노선도를 포함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지하철 노선도도 함께 살펴보았다. 각 장(章)에 따른 연구 성격에 따라 행정구역명과 기차역명, 그리고 인명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II장에서는 로마자 모음 표기에 대한 연구의 방향과 성격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III장, IV장에서는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베풀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도, III장에서는 기차역명, 행정구역명, 인명 등의 모음 표기의 실태에 대한 정량적 분석(quantitative method)을 실시하여 모음 표기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다. IV장에서는 주로 ‘지명’, ‘음식명’, ‘지하철역명’을 대상으로 자문 외국인과 여러 차례 토의한 결과와 해석 등 정성적 분석(qualitative method)을 수행한다.

지명과 인명은 그 수가 아주 많고 영문 표기에 아주 다양한 소리와 철자의 조합이 나타나기 때문에 용례집의 지명과 음식명, 그리고 그 외 지하철역명, 행정구역명, 인명 등의 표기가 지닌 문제점을 살피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 실제 적용되는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고찰이자 대안 모색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Ⅱ. 모음 표기 평가 기준과 방향

### 1. 모음 표기의 평가 기준

구체적인 자료 분석에 앞서 이 연구의 방향을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모음 표기 문제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자.

현행 표기법은 과거의 표기법에 비하여 표기 글자 수가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IV.3.다. 참조). 이에겐 모음 표기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특수부호 대신 eo, eu 와 같이 두 개의 글자를 조합한 표기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단순히 표기가 길어진다는 문제점 정도가 아니라 음절 경계 인식을 어렵게 하여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보다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테면 이 연구의 분석 자료 중 다음과 같이 4개 이상의 모음 글자가 연쇄된 다양한 유형의 표기가 나타난다(III장 참조). 이러한 표기들에서 어디가 음절 경계 인지 그 자체로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Daeeun-ri, Maeeum-ri, Daeoe-dong, Naeui-ri, Eoeun-dong, Seooe-ri,  
Geui-dong, Oeeo-ri, Hoeeok-ri, Yeouido-dong

이러한 것은 어느 한 경우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예도 (1)과 (2)처럼 끊어 읽는 방식이 모두 다르다.

1) wae/a, wae/u

Swae/am-ri (쇄암리), Swae/un-dong (쇄운동)

2) wa/eo, wa/eu

Hwa/eomsa (화엄사), Hwa/eun-ri (화은리)

이러한 표기 예가 실재하는 것은 여러 모음 글자의 연쇄가 생기는 현행 표기법이 독법상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가 관심은 이러한 문제를 피해가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등을 고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다양한 표기 방안들을 비교하면서 단순히 위에서 제기된 모음 표기의 문제만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어떤 표기법이 모음 연쇄의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어도 다른 점에서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면서 모음 경계 인식의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관련 문제들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다. 이를테면 종전의 표기법은 표기 길이도 짧고 음절 경계 인식의 문제도 현행 표기법보다 덜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수부호로 인하여 기계화(인터넷)의 활용도는 떨어진다는 단점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어느 일면만을 보고 현행 표기법의 대안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 검토 대상으로 삼는 모음 표기는 ‘eo’, ‘eu’, ‘ae’, ‘oe’, ‘ui’이다. 이들 표기가 모음 글자를 조합하여 씌우로서 그 자체로 ‘e-o’, ‘e-u’, ‘a-e’, ‘o-e’, ‘u-i’와 혼동될 속성을 이미 내재하고 있고, 그것이 다른 모음 글자와 연결될 경우 그만큼 더 독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특히 ‘eo’, ‘eu’는 그동안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던 대표적인 문젯거리이기도 하다.

이 모음 표기에 대한 검토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것이 그 주요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 발음의 예측성. 즉 얼마나 실제에 가깝게 발음을 유도하는가?
- 분절 경계의 인식성. 즉 다른 모음과의 연쇄에서 일어나는 경계를 얼마나 쉽



게 인식하는가?

- 정보화의 적합성. 즉 얼마나 용이하게 인터넷에서 로마자 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 한글 표기와의 대응성. 즉 한글로 구별되는 표기가 로마자 표기에서도 잘 구별되는가?
- 표기의 체계성. 즉 얼마나 간결하면서 일관된 체계성을 지니고 있는가?
- 전통성과 대중성. 즉 얼마나 전통성이 있고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이는가?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일례로 신경구·안수영(1993)의 경우에는 8가지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관점에 따라서 얼마간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김충배(1978)의 경우에는 5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각 기준마다 0, 1, 2점의 차등값을 부여하여 Yale체계와 머큐-라이샤워 표기법이 문교부의 59년 표기법보다 더 우수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수치화는 실제 평가가 주관적이라는 점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지양한다.

각 기준의 가치도 꼭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기준들에서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로마자 표기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음의 예측성은 생각보다 아주 덜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익섭(1997)이 지적처럼 로마자로 한국어를 표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신에 억지로 발을 맞추는 것과 같아서 로마자 표기법이 외국인의 정확한 발음을 유도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 신경구(1989), 신경구·안수영(1993)에서도 표기법 제정에서 “정확한 음성 표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정보화의 적합성은 인터넷의 개념이 없는 경우라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기준을 무시하면 과거의 표기법(1984)이 다른 표기안보다 우위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 한글 표기로 구별된다고 해서 로마자 표기로써 굳이 ‘정주’와 ‘청주’, ‘자운동’과 ‘자은동’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관점에 선다면 한글 표기와의 대응성은 해당 표기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불필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한글 표기처럼 로마자 표기에서도 이들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서면 이 기준

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상의 기준은 매우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표기법이 타당성을 가늠하는 데 간과할 수 없는 기준인 것도 분명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표기안의 장단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 모음 표기안의 검토와 방향

국어의 모음 수에 비하여 로마자 모음 글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국어 모음을 적절하게 표기하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국어 모음(특히 ‘어’, ‘으’, ‘애’, ‘외’, ‘의’)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크게 여섯 가지 정도의 유형이 가능하다.

- 1) 특수부호 사용 표기
- 2) 모음 글자의 조합 표기
- 3) 반모음 글자 조합 표기
- 4) 1문자 2음운 표기
- 5) 모음과 자음 글자의 조합 표기
- 6) 자음 글자 전용 표기

현행 표기법은 두 번째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종전의 표기법(1984)은 ‘어’, ‘으’, ‘의’의 경우 첫 번째 방법을 택하였고, 근래 2-30년 이내의 논의들은 ‘의’는 대부분 현행 표기법과 같은 두 번째 방식을 지지하면서, 일부 논의에서 ‘어’, ‘으’에 대하여는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을 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애’, ‘외’의 경우는 19세기에 표기법이 시작된 이래로 다양한 방식이 등장하였지만, 근래 2-30년 이내의 주요 논의들 중에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하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어<sup>3)</sup> 1984

---

3) 김복문(1996)의 경우 ‘외’를 ‘weh’(we)로 표기하는 등 예외적인 주장도 있다.

년 표기법이나 현행 표기법 모두 ae, oe로 표기하는데, 뚜렷이 이와 다른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표기 방법의 차이는 ‘어’, ‘으’의 표기에서 뚜렷하게 갈린다. 이를 중심으로 기존의 각 표기안들을 살펴보면, 필요한 경우 ‘애, 외, 의’ 등 다른 모음 표기도 참고하기로 한다.

## 가. 특수부호 사용 표기

국어의 모음 표기에서 특수부호(diacritics)를 사용하는 안은 매우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19세기의 표기법에서부터 불어식 표기나 반달표(˘)를 이용한 표기 방식이 보인다. 그러나 당시 모음 표기에 특수부호를 이용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속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표기 예를 보면 다양한 모음에서 다양한 특수부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표기 방식을 ‘어, 으’를 중심으로 일부 모음의 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sup>

### ① Aston(1878)

ǔ(어), eu(으), è(애), é(에), oé(외)

### ② W. M. Baird(1895)

ǔ(어), eu(으), à(애), a(외)

### ③ Hodge(1897)

ö(어), eu(으)

### ④ Eckardt(1923)

ö, ŭ(어), ŭ(으), ai,ä(애), oi,ö(외)

### ⑤ 정인섭(1935)

o'(어), u'(으), e'(애), oe(외), u'i(의)

4) 각 표기법의 전체 자모음 표기 내용은 김민수(1973), 도형수(1994), 정희원(1997)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전체 표기 내용을 꼭 보일 필요가 없어 생략한다.

- ⑥ 머큐-라이샤워(1939)  
ö(어), ü(으), ae(애), oe(외), üi(의)
- ⑦ 조선어학회(1940)  
ö(어), ü(으), ë(애), oe(외), üi(의)
- ⑧ 최현배(1942)  
ö(어), ü(으), ai(애), oe(외), üi(의)
- ⑨ Lukoff(1947)  
ø(어), ʉ(으), ä(애), ö(외), ʉi(의)
- ⑩ 문교부(1948)  
ö(어), ü(으), ai(애), oe(외), üi(의)
- ⑪ 문교부(1984)  
ö(어), ü(으), ae(애), oe(외), üi(의)

이상과 같이 특수부호를 이용한 표기법은 머큐-라이샤워 표기법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가, 머큐-라이샤워 표기법 이후 공식적인 정부 표기법 등 주요 표기법들에서 대부분 이러한 표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sup>5)</sup>

위에서 본 바처럼 ‘어, 으’ 등 모음에 대한 특수부호를 이용한 표기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 1) 반달표(˘) 사용

ü(어): Aston(1878), W. M. Baird(1895)

ö,ü(어), ü(으): Eckardt(1923)

---

5) 머큐-라이샤워 표기법은 자음은 영어식으로, 모음은 이탈리아어식을 따른다는 원칙을 명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a, e, i, o, u는 이탈리아어식 발음에 따라 국어의 ‘아, 에 이, 오, 우’의 표기로 고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어, 으, 애, 의’ 등의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의 핵심이 되었다(정희원 1997 참조).

ö(어), ü(으), üi(의): 머쿤-라이샤워(1939), 조선어학회(1940), 최현배(1942),  
문교부(1948), 문교부(1984)

2) 어긋점(') 사용

o'(어), u'(으): 정인섭(1935)

3) 기타 부호 및 이문자(異文字) 사용

ö(어): Hodge(1897)

ä(애), ö(외): Eckardt(1923)

ø(어), ä(애), ö(외), ㅏ(으), ㅑ(의): Lukoff(1947)

è(애), é(에), oé(외): Aston(1878)

à(애): W. M. Baird(1895)

우선 이 가운데 3)의 이문자(ø)나 기타 부호(¨, ´, ` , -)를 문자 위에 사용한 표기 방식은 다른 특수부호 표기에 비하여 더 복잡하기만 할 뿐 특별한 이점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장 보편화된 방식은 1)의 반달표(˘)를 이용한 것인데, 이러한 표기법은 발음의 예측성에서 현행 표기법보다는 다소 나아 보인다. ‘어’와 ‘으’는 대부분의 외국인에게 어려운 발음이어서 어차피 정확한 발음의 유도는 어느 표기를 택하든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표기법도 만족할 수준에까지 이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표기법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는 외국인이 ö를 o에, ü를 u에 근접하게 인식하여 발음할 경우, 국어의 ‘어’와 ‘오’, ‘으’와 ‘우’가 서양인의 청각 인상에서 매우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머쿤과 라이샤워는 이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방식의 표기 방식을 고안하였다), 어느 정도는 실제 발음에 가깝게 유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표기법은 음절 경계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현행 표기법보다 더 양호하다. 글자 수가 줄어들어 음절 경계 인식의 문제가 대폭 줄어들어 드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모음 표기의 문제에 있어서 이 종전의 표기법이 역으로 다시 현행 표기법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표기법이 현행 표기법에 대하여 우월성을 갖는 면도 있지만 단점 역시 지니고 있다. 즉 이 표기법은 특수부호를 사용함으로써 기계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sup>6)</sup> 그로 인해 현행 표기법으로 개정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인터넷에서 활용이 어렵다는 점은 오늘날 로마자 표기법에서 큰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물론 인터넷에서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그러면서도 특수부호의 장점을 살리는 방안으로 2)의 방식(o', u')처럼 타자하기 쉬운 어긋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전의 표기법에서 k'(ㄱ), t'(ㄷ), p'(ㅍ), ch'(ㅈ)처럼 격음의 표기에 어긋점을 사용하였으나 일반 대중들의 거부감이 컸고, 실제 표기 상황에서 탈락된 채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특수부호를 이용한 표기법이 예측할 수 없는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현행 표기법을 개정할 만한 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eo(어), eu(으)로 적던 59년 표기법을 ö, ü로 적고자 한 개정시안(1979)에 대하여 반론을 편 이현복(1981:22)의 언급처럼(이 논문에서는 ö, ü가 완전한 음운 표기도 아니어서 원음의 환원성이 불완전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특수부호를 이용하여 표기한다면 '에'도 당연히 같은 부호로써 ä로 적어야 할 것인데, 모음 글자의 조합형으로 표기하고 있어 eo, eu, ae와 같이 적는 방식(59년 문교부 표기법,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비하여 표기의 체계성이라는 기준에서 뒤떨어진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비록 특수부호를 이용하는 방안이 2개의 모음글자가 조합된 eo, eu의 표기를 한 글자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적절한 대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6) 일례로 1985년 ISO의 요청에 따른 남북 통일안은 추진 과정에서 당시의 문교부 표기법을 대안에서 제외하고 남북 협상을 위하여 별도의 표기법안(1986년 공업진흥청 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문교부 표기법이 ISO에서 규정한 규격 조건에 맞지 않았고, 한글 기계화와 자료 검색에 매우 불합리하였기 때문이다(도형수 1994:160 참조).

## 나. 모음 글자의 조합 표기

모음 글자를 조합하여 표기하는 방식 역시 표기법 초기부터 널리 사용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표기는 ‘어, 으’의 표기 방식과 관련하여 유형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어’, ‘으’를 모두 한 문자로만 표기하는 방식, ‘으’만 한 문자로 표기하는 방식, ‘어’만 한 문자로 표기하는 방식, 둘 모두를 두 문자의 조합형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어’, ‘으’를 모두 한 문자로만 표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① 김충배(1978)

o(어), u(으), ae(애), e(에), wu(우), ow(오)

이 방식은 ‘어’, ‘으’의 표기는 간소화되었으나, 빈도가 높은 ‘오’, ‘우’가 보편적인 표기인 o, u 대신 wu, ow의 조합형을 택하고 있어서 얼마나 현행 표기에 비하여 장점이 있는지 의문이다.

‘으’만 한 문자로 표기하는 방식으로는 이상억(1981)이 있다(이상억 1982에서 재인용).

### ② 이상억(1981)

aw(어), u(으), o(오), oo(우), ui(의)

다 떠나서 이 표기법은 ‘어’를 aw로 표기하는 것이 얼마나 대중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oo(우)는 영어식 표기법을 따른 것인데, 그렇다면 다른 모음의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점에서 그리 체계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치밀한 통계적 조사를 바탕으로 한 표기법이기는 하지만 역시 현행 표기법을 대체할 만한 우월성을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어’만 한 문자로 표기하는 방식은 일찍부터 다양하게 보인다.

③ Corée(1881)

e(어), eu(으), ai(애), ei(에), oi(외)

④ Imbault-Huart(1889)

e(어), eu(으), ai(애), ei(에), oi(외)

⑤ Scott(1887)

e, ð(어), eu(으), ai(애), ei(에), oi(외)

⑥ 배주채(1999)

e(어), yi(으), ae(애), ea(에), oe(외)

대부분 ‘어’를 e와 같이 한 문자로 표기하고, ‘으’는 eu와 같이 두 문자로 표기한 다.<sup>7)</sup> e로 ‘어’를 표기한 결과 ‘에’는 ei와 같이 두 문자를 배당한다. 현행 표기법에 서 eo(어)가 e, o로 분절되어 읽힐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되고는 하는데, 이와 같이 한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자법 체계인 Yale(1954)에서도 볼 수 있고, 1997년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의 개정시안에서도 볼 수 있다.<sup>8)</sup> 이 개정 시안은 ‘어’, ‘으’를 각각 e, eu로 표기한다. ‘어’가 ‘에’에 비하여 국어에서 차지하는 기능 부담량이 훨씬 크므로(표 <III-30> 참조) ‘e’를 배당하고, 기능 부담량이 낮은 ‘에’에는 ‘ei’의 조합형 표기를 배당하는 것이다. 즉 이 방안은 현행 표기법에 비하여 발음 예측성에서 크게 낮다고 할 수는 없으나(‘으’의 경우는 표기 방식이 동일하다), 분절 경계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sup>9)</sup>

7) 19세기 중후반기부터 서양인들이 ‘ㄱ’의 경우에는 1문자 표기, 특수부호 표기 등도 다양하게 나타나면서도 ‘으’의 경우는 ‘eu’로 적는 것이 거의 보편적이었다. ‘어’ 등에 특수부호를 사용한 표기법(Aston 1878, W. M. Baird 1895, Hodge 1897 등)에서도 ‘으’만큼은 ‘eu’로 표기하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적어도 ‘으’를 eu로 적는 것은 역사적 전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될 만하다.

8) 전자법과 전사법은 자음 표기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갖는 것이지만 모음 표기에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 것이 아니다. 전자법에서도 다양한 모음 표기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전사법 안에서도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방안들이 전자법인가, 전사법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배주채(1999)의 주장처럼 ‘애’는 ae로 적으면서 비슷한 처지의 ‘에’는 e로 적는 것은 한글의 체계성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어’를 e로 적고 ‘에’를 모음 두 글자를 조합하여 적는다면 체계성을 갖출 수 있다. 즉 표기의 체계성에서 다른 표기법보다 나은 것이다.

이와 같이 ‘어’를 한 문자로 표기하고, ‘으’, ‘에’ 등을 두 문자로 표기하는 방식은 매우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표기 방식이다. 다만 로마자 표기법은 다수 언어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언어에서 ‘e’가 /e/에 대응된다는 점에서 국제적 보편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중들도 마찬가지로 e로써 ‘에’가 아닌 ‘어’를 표기한다는 데 대한 거부감을 갖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이 표기법 역시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고 현행 표기법을 개정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둘 모두를 두 문자의 조합형으로 표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⑦ A. L. Baird(1896)

au(어), eu(으), ai(애), ei(에), eu(외)

⑧ 문교부(1959)

eo(어), eu(으), ae(애), e(에), oe(외), eui(의)

⑨ 현행(문화관광부 2000)

eo(어), eu(으), ae(애), e(에), oe(외), ui(의)

이 방식은 현행 표기법에 해당한다. 현행 표기법은 eu(으) 등의 표기가 전통성을 지니고, 특수부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기계화에 유리하고,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표기라는 점 등 장점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

---

9) 특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인명 표기에서 ‘여’(yeo)의 표기가 상당한 빈도를 보이는데, 이와 같이 기능 부담량을 고려하여 ‘e’로 표기하여 표기 글자 수를 줄여 표기의 식별성을 높일 수 있는 등 하나의 대안으로 진지하게 검토될 만하다.

실이다. 발음의 예측성에서 뛰어나지 못하고, eo, eu, oe, ui 등 표기가 그 자체로 혹은 다른 모음과 연결될 경우 분절 경계의 인식에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앞서 e를 /ㅓ/에 해당하는 것이 국제적 보편성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 현행 표기법도 e를 /ㅓ/에 대당한 것은 보편성을 얻었으나 eo로써 /ㅓ/를 나타내는 것은 역시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점이다. 발음의 예측성이나 분절 경계의 인식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내세운다면 현행 표기법은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1984년 표기법과 같은 방식을 취한다면 이 점에서는 개선될 수 있으나 기계화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어떤 평가 기준을 중시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되는데, 이에 더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분절 경계를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이며, 표기 사례에서 얼마나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 등이 면밀히 고찰되어야 하는 것이다.

## 다. 반모음 글자 조합 표기

이는 Yale(1954) 체계이다.

### ① Yale(1954)

e(어), u(으), wu(우), ay(애), ey(에), oy(외), uy(의)

이 표기법은 앞서 모음 글자를 조합하여 표기하는 방식과 유사해 보이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a, i, e, o, u의 다섯 모음 글자끼리는 조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oy-a, ey-u, ay-wu’ 등처럼 앞뒤로 다른 모음이 이어질 경우 y, w가 경계 역할을 하여 분절 경계를 분명히 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 반모음 글자를 조합함으로써 모음 글자에 여유를 갖게 되어 ‘어, 으’를 한 개

의 모음으로 표기하게 됨으로써 eo, eu 표기가 갖는 문제점도 해소되고 있다. 즉 이 표기법은 분절 경계 인식의 문제에서 현행 표기법보다 우월하고, 기계화 등에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와 같이 반모음을 조합하는 방식도 진지하게 고려될 만한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어’, ‘으’를 e, u로 표기하는 것이 국제적 보편성에서 떨어져 발음의 예측성에서 현행 표기법보다 크게 낮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약점은 두 모음 글자를 조합하는 방식이나 반모음 글자를 조합하는 방식이 마찬가지로인 셈인데, 결국 두 방식은 분절 경계의 인식에서 우열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하여 Yale 체계와 같은 방식이 현행 표기법을 전면적으로 대체할 만한 것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표기법의 교체는 큰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거의 완벽한 표기법이 아닌 한 선불리 대안으로 수용되어서도 안 되며, 또 현행 표기법이 문제점의 정도나 그 보완 방법의 가능성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라. 1문자 2음운 표기

구체적인 표기안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지만 로마자 표기의 논의 과정에서 종종 언급되는 방식으로서 ‘어’와 ‘오’, ‘으’와 ‘우’를 구분하지 않고 한 모음으로 표기하는 방안이 있다. 즉 ‘어’와 ‘오’를 모두 ‘o’로 표기하고, ‘으’와 ‘우’를 모두 ‘u’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현복(1981)에서 표기법 이원화의 취지로 제안한 실용 로마자 표기법에서 볼 수 있다.

### ① 이현복(1981)

i(이), e(에,애), a(아), o(어,오), u(으,우)

이는 앞서 머큐-라이샤워 표기법에서 서양인의 귀에 한국어의 ‘어’와 ‘오’, ‘으’와

‘우’가 비슷하게 들리므로 ‘어’를 ö, ‘으’를 ü로 적은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 머쿤-라이샤워 방식을 취하는 1984년 표기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반달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별개의 국어 모음을 하나의 글자로 적는 이 방식과 같아지게도 된다.

이러한 방식은 ‘어’, ‘으’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서 과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음의 예측성, 음절 경계의 인식 문제 등에서 현행 표기법보다 낫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결정적으로 한글 표기와의 대응성에서 문제가 된다. 즉 2음운 1문자의 표기 방식을 취함으로써 한글로 구별되는 표기가 로마자 표기에서 구별되지 못하여 ‘성주’와 ‘송주’, ‘자은동’과 ‘자운동’ 등을 동일한 표기로 적게 된다.

로마자 표기의 주 목적을 한국어의 발음 전달에만 둘 경우 근접한 발음의 차이는 무시하고(이를테면 국어에서도 거의 구별되지 못하는 ‘에’와 ‘애’를 무시하고) 단일한 표기안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자는 단순히 발음 전달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통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는 면도 크다. 우리가 발음의 차이는 거의 느끼지 못하면서도 ‘양재동’과 ‘양제동’이 시각적 변별성을 가져 두 지명을 구별하는 데 편리한 것처럼, 로마자 표기도 적어도 한글 표기만큼 시각적 변별성을 갖는 것이 편리한 점이 있다. 이에 더하여 전자 정보의 시대에서 가급적 표기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정보 검색 등에서 유리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 이익섭(1997)에서는 로마자 표기가 외국인에게 그들의 외래어로서가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구분되는 음운(이를테면 ‘달’, ‘탈’, ‘딸’)은 구별되어 표기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에 바탕을 둔다면 역시 국어에서 구분되는 ‘어’와 ‘오’, ‘으’와 ‘우’가 로마자로 구분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 한글 표기에 대응되지 못하는 2음운 1문자식 표기는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 마. 모음과 자음 글자의 조합 표기

이는 모음과 자음을 결합하여 표기하는 방안이다. 기본적으로 영어식 표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비교적 근래에 이러한 방식의 표기안들이 나왔고 특정 언어의 표기 체계를 따른다는 점에서 이전의 표기안들과 기본 정신에서 달리하기에 각 안들을 다소 구체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 ① 김복문(1996)

모음 표기 전체에 대한 김복문(1996)의 표기안은 다음과 같다.

<II-1> 김복문(1996) 모음 표기안

한글	표기안	한글	표기안
ㅏ	ah	ㅑ	yae
ㅓ	yah	ㅕ	eh (e-)
ㅗ	ur	ㅛ	yeh (ye-)
ㅛ	yur	ㅜ	weh (we-)
ㅜ	oh (o-)	ㅝ	wah
ㅠ	yoh (yo-)	ㅞ	wae
ㅡ	oo	ㅟ	woh (wo-)
ㅣ	yoo	ㅠ	ooeh (ooe-)
ㅑ	uh (u-)	ㅡ	wee (wi-)
ㅓ	ee (i-)	ㅢ	ui
ㅕ	ae		

이 표기안의 각 모음에 대한 표기가 얼마나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은 여기에서 일일이 거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위 표기안에서 괄호 밖의 것은 그 음절에 받침이 없을 때, 괄호 안의 것은 받침이 있을 때 사용하는데, 이러한 복잡한 표기가 갖는 장단점에 대하여는 논의를 약하기로 하되, 다만 표기의 체계성이라는 기준에서는 다른 표기법들에 비하여 뒤떨어진다는 점만 언급한다.

이 표기안은 적어도 ‘어’, ‘으’의 경우에는 두 모음 글자를 조합하지 않고 모음 글자와 자음 글자의 조합으로 표기한다.

어: ur, 으: uh (u-)

나머지 현행 표기법에서 두 모음 글자의 조합으로 표기하는 ‘애, 외, 의’의 경우, ‘애, 의’는 현행 표기법과 동일하게 ae, ui로 표기하고, ‘외’는 we(h)로 표기하여 두 모음 글자의 조합형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외’를 이와 같이 표기함으로써 대신 ‘웨’를 ooe(h)와 같이 장황한 표기를 택하게 됨으로써 적어도 ‘애, 외, 의’의 표기에 관련해서 현행 표기법보다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어, 으’에 국한하여 본다면, 이 표기법은 우선 발음 예측성에서 있어서 현행 표기법보다 강점을 지닐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표기안이 영어 화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는데, 영어가 국제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언어라는 점을 생각하면 발음의 예측성에서 뛰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권 화자가 아닌 경우에는 발음의 예측성에 있어서 현행 표기법보다 낮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우’나 ‘이’ 같은 경우 현행 표기법과 달리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u’, ‘i’ 표기를 채택하지 않고(‘이’는 뒤에 받침이 올 경우에만 ‘i’로 적는다) ‘oo’, ‘ee’의 표기를 택함으로써 오히려 범언어적 화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발음 예측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 표기안은 현행 표기법에 비교하여 음절 경계 인식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영어식 표기를 채택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모음 표기가 모음과 자음 글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방식은 폐음절인 경우나, 개음절이라도 뒤에 자음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가독성이 뛰어날 수 있지만, 모음-모음의 연쇄에서는 심각한 독법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즉, ‘소양호’의 경우 Sohyahngoh, ‘처인성지’는 Chureensurngjee, ‘마에불’은 Mahaebuhl, ‘자은동’은 Jahun-dohng과 같이 표기되면, 그 분절의 경계를 자음 글자 앞에서 나누게 되면 h, r의 자음이 발음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다. 이 표기법에서 h, r이 항상 묵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닌 한, 이들이 실제 자음으로 발음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외국인 이 스스로 판단하여 구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김명숙(2000:394)에서는 완벽한 철자 체계의 조건의 하나로 “묵음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 표기안처럼 묵음 표기가 존재하는 것은 아무래도 곤란한 것이다. 결국 이 연구의 주제인 현행 표기법 모음 연쇄의 문제와 관련하여 김복문(1996) 표기안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현행 표기법의 대안으로 부적합한 면이 있다.

## ② 음절 단위 영자 표기법(양병선 2001)

이 표기법도 김복문(1996)과 마찬가지로 영어식 표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양병선(2001)은 로마자 표기법이 “한글과 로마자 사용 언어간 음자번역(inter-lingual phonetic/letter translation)의 일종이며 번역의 기준은 세계어인 영어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음절 중심의 표기안을 제시한다.<sup>10)</sup>

<II-2> 양병선(2001) 모음 표기안

한글	표기안			한글	표기안		
	개음절	폐음절	모음		개음절	폐음절	모음
ㅏ	a(a)	ar	ah	ㅑ	yo	yo	yo
ㅓ	ur	u	uh	ㅕ	yoo	yoo	yoo
ㅗ	oh	o(r)	oh	ㅛ	yae	ya	yae
ㅛ	oo	oo	woo	ㅜ	ye(h)	ye	yeh
ㅜ	eu	eu	eu	ㅠ	ui	ui	ui
ㅡ	ee	i	yee	ㅘ	wa(a)	waa	waa
ㅞ	ae	a	ae	ㅚ	woh	wo(r)	woh
ㅟ	e(h)	e	e(h)	ㅙ	wae	wa	woh
ㅢ	oe	oe	oe	ㅞ	we(h)	we	wae
ㅤ	ya(a)	yar	yah	ㅟ	wee	wi	wee
ㅥ	yur	yu	yuh				

10) 이 표기안 중 단모음 ‘ㅏ~ㅢ’의 9개 표기법은 해당 논문의 편집 잘못으로 누락되어 있다. 이 부분은 해당 논문의 부록에 ‘음절 단위 국어의 영자 표기법’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이 표기법은 앞서 김복문(1996)보다 더 복잡한 체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1모음이 여러 개의 표기법을 갖는데, ‘어’를 예로 들면 ‘거’처럼 개음절인 경우에는 gur, ‘걱’처럼 폐음절인 경우에는 guk, ‘어’처럼 모음만으로 구성된 음절인 경우에는 ‘uh’로 표기한다. 어떤 경우에는 수의적인 표기법을 갖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가’는 gaa로 적는 것이 원칙이나 의미의 혼란이 없는 경우에는 ga로도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영어식 표기법을 거의 답습한 데 따른 결과로서, ‘의미의 혼란’이란 바로 유사한 표기의 영어 단어가 있어 달리 읽힐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치이다. 이러한 표기의 복잡성이 갖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역시 일일이 논의하지 않기로 하지만, 이러한 복잡성이 결국 표기의 비체계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지적해 두기로 한다.

이 표기법은 현행 표기법에 비하여 발음의 예측성에 관해서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언어인 영어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가 해당 로마자 표기를 읽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표기법은 한 모음에 세 가지 표기법이 있을 정도로 복잡하지만 각각의 상황은 영어식 표기를 수용한 것이기에 독자의 입장에서서는 상당히 실제음에 근접하게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점도 전면적인 것은 아니다. 현행 표기법에서 두 모음 글자의 조합형인 ‘어, 으, 애, 외, 의’ 가운데 ‘어’의 표기만 eo와 달리 적을 뿐, 나머지는 eu, ae, oe, ui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현행 표기법에서 이들 모음의 표기가 e-u, a-e, o-e, u-i로 분절될 가능성이 있어 발음의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관련하여 이 표기법도 별다른 장점을 갖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또 다른 기준인 모음 연쇄의 경우에는 이 표기법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거’의 경우 gur, ‘어’의 경우 uh로 표기되는데, 이와 같이 종성이 없는 경우 뒤에 ‘우’ 같은 모음이 이어지면 guroo, uhoo와 같은 표기가 나타나 분절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gur/oo, uh/oo와 같이 분절하여 ‘거우, 어우’로 발음할 가능성보다는 gu/roo, u/hoo로 분절하여 ‘거루(혹은 구루), 어후(혹은 우후)’와 같이 r, h를 발음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



한 점에서 이 표기안도 현행 표기법이 모음 연쇄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이 되기에는 부적합하다.

## 바. 자음 글자 전용 표기

크게 고려할 만한 방안은 아니지만, 로마자의 자음 글자를 모음 표기로 사용하는 방안이 있다. 장태익(1957)의 ‘신문자안’은 기본 목적에서 한글 대신 아예 로마자로 쓰자는 것으로 로마자 표기법과는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일부 모음을 자음 글자를 이용한 표기안을 제시하고 있다.<sup>11)</sup>

장태익(1957)

r(어), v(으), x(애), q(의)

이러한 표기법은 국제적인 보편성에서 크게 어긋나 발음의 예측성에서 어떤 표기법보다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여 고려 대상으로 삼을 여지는 매우 적다.

이상에서 우리는 국어 모음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여섯 가지를 살펴보았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간에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하나를 절대적으로 타당한 표기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현행 표기법 역시 문제점이 있고, 또 그 기준에서 더 우월한 다른 방식도 있지만, 개정에 뒤따르는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무릅쓰고 전면적으로 대신할 만큼 절대적으로 우월한 표기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현행 표기법은 ‘어, 으, 애, 외, 의’를 두 모음 글자의 조합형으로 표기하여 eo, eu가 ‘어, 으’의 발음을 거의 유도하지 못하며, 모음 연쇄의 경우 그 표기가 길고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의 일부 표

---

11) 김민수 (1973:298)에서 인용함.

기안에서는 개선된 점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역시 부분적인 것이며 일부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보이기도 하였다. 발음의 예측성은 제한된 로마자 글자로 표기하는 한 거의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물론 익숙한 영어식 표기에 기대어 표기함으로써 발음의 예측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그 표기안은 매우 불규칙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여 체계성을 결하고 있었다. 또 어떤 환경에서는 영어에 기대어 국어음에 근접한 발음을 유도하지만, 모음 연쇄와 같이 어떤 환경에서는 불필요한 발음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 결과는 현행 표기법의 문제점을 극복할 만한 적합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다. 사실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안은 그동안 수십 종에 이를 정도<sup>12)</sup>로 등장하였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여러 면에서 단점을 없앤 완벽한 표기법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강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모음의 경우, 근본적으로 제한된 로마자 5자 글자로 10개의 단모음을 적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완벽한 표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다면 어떤 표기법이든 그 문제점에만 지나치게 집착하여 그 표기 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제안된 표기안들은 현행 표기법의 문제점을 일부 극복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면에서 또다른 문제점을 낳는다. 이 점에서 우리는 현행 표기법의 대안을 찾는 작업이 새로운 표기법을 마련하는 것이기보다는 현행 표기법의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고 본다. 현행 표기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의 심각성은 어떤 것인지, 현행 표기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점을 해소할 만한 방안은 없는지 등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의미로 본 과제는 과거 2000년에 개정했던 것처럼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매우 근본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다.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

12) 정희원(1997), 유명우(1999) 등 참조.

면 그 작업은 매우 신중하게 오랜 시간의 치밀한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표기안을 제시하는 대신 현 표기법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외국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현행 표기법의 우리 음가에 대한 로마자 표기는 유지하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예컨대 Yeouido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여의도’에 가깝게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Geumjeongsanseong(금정산성) 같은 경우 너무 길어 외국인들이 쉽게 읽어내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사례들을 어떻게 철자를 바꾸지 않고 가독성을 높여 혼란을 줄이느냐가 본 연구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다만 조사 분석 과정에서 향후 혹시 있을 개정을 염두에 두고 보다 근본적인 연구를 요하는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따로 언급을 할 것이다.

### III. 로마자 표기의 통계적 분석

#### 1. 로마자 모음 표기 빈도 조사의 목적과 의의

우리는 II장에서 로마자의 모음 표기가 갖는 문제의 핵심과 이에 대한 각 표기 안들의 내용을 간략히 검토하면서 새로운 표기안보다는 현행 표기안을 근간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장은 이와 같이 로마자의 모음 표기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필요한 기초적·통계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IV장에서는 이러한 통계 조사와 현행 로마자 표기에 대한 자문 외국인들의 검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안들을 검토할 것이다.

국어가 10개의 단모음을 갖고 있는 데 비하여 로마자에는 모음 글자가 5개 밖에 없으므로 국어 모음의 로마자 표기는 필연적으로 두 개 이상의 로마자로써 국어의 한 단모음을 표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eo(어) eu(으) ae(애) oe(외) ui(의)

이미 이 자체만으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독법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내포하게 된다. 즉 이들 각각은 그 모음자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글자가 ‘에오(eo), 어우(eu), 아에(ae), 오에(oe), 우이(ui)’처럼 별개의 모음으로 읽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sup>13)</sup>

---

13) 이는 이중모음의 경우까지 확대된다. 즉 yeo(ㅕ), yae(ㅖ), wae(ㅘ) 등은 각각 ‘예오, 야에, 와에’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국어의 모음이 연결하는 경우 그 로마자 모음 글자의 연쇄는 독법에 어려움을 가중하여 더 큰 문제점을 보이게 된다. 즉 Haeundae(해운대)와 같은 표기는 ‘aeu’와 같이 로마자 모음 글자 3개가 연이어 나타나 그 음절 경계를 쉽게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예들은 현행 로마자 표기의 모음 표기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독법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주목하여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로마자 26자만을 사용할 경우 거의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현행 로마자 표기는 종래의 특수기호를 사용한 표기법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 데서 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기호 없이 로마자 26글자만을 사용하는 표기법을 견지하는 태도에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일 독법의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문제점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미미한 것이라면 그 정도의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국어 로마자 표기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모음자의 표기 실태와 빈도를 통계적으로 측정하여 그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현행 로마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 이와 더불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경우에도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부 문제시되는 예만 중시하여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러한 방식은 전체적인 표기 원칙과 체계를 무너뜨릴 우려도 있을 뿐더러 또다른 부분에서 예기치 못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 2. 자료

국어 모음의 로마자 표기 사례는 외국인에게 노출 빈도가 높은 예들을 대상으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국어의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조사, 감탄사 등은 조사 대상으로서 별 의미가 없다. 실제 이들의 로마자 표기가 외국인에게 노출될 일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이다.

결국 외국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체언류가 되는데, 체언류라고 하더라도 대명사와 수사 역시 로마자 표기로 제시될 필요성은 거의 없다. 명사류가 궁극적인 로마자 표기의 대상이라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보통명사는 로마자 표기가 노출될 일이 별로 없다고 할 것이다. 대부분 영어 등 외국어로 번역되어 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화장실 Toilet

금연 No Smoking

출구 Exit

따라서 로마자 표기가 실제로 소용되는 것은 고유명사에 국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조사는 고유명사 가운데 외국인에게 자주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용어를 자료로 선택하여 그 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조사는 (1)외국어 관광안내표기 (2)행정구역명 (3)지하철역명 (4)기차역명 (5)인명의 로마자 표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이 한국을 여행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주요 항목들을 모아 2006년에 발간한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용례집」에 수록된 로마자 표기들이다. 주요 문화재와 사적지, 산·호수 등 자연지명, 대표적 위락 시설, 음식명 등의 로마자 표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로마자 표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에 잘 부합하는 성격의 자료로서 이 연구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분석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행정구역명: 행정구역명의 로마자 표기는 도로 표지판에 자주 표기되는 등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도로로 여행할 경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행정구역명 즉 시·도·군·읍·면·동·리의 표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면이나 리 단위는 외국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그 중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분석 표본의 크기를 확대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다.

- 3) 지하철역명: 외국인이 서울·대구·부산 등 대도시를 여행할 경우 이용도가 높은 것이 지하철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하철 역명의 로마자 표기는 매우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지하철이 운행되는 지역의 전체 역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4) 기차역명: 기차역명도 지하철역명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나 지하철역명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에 비하여 기차역명은 전국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분석하였다. 물론 이들을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나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큰 의미 차이를 갖는 것은 아니다.
- 5) 인명: 인명 역시 외국인이 한국인과 접촉하는 경우 매우 중요한 로마자 표기 대상이 된다. 인명 자료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시기·특정 집단의 남녀 인명을 수집하였다. 작명의 경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점을 고려하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6개 연령층의 이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명 표기의 분석에 있어서 현재 이름의 소유자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하는가 하는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 연구는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인명을 표기할 경우 어떤 실태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여권 등 현재 인명 표기의 실제 사례는 무의미하다. 한편 성은 현재 로마자 표기법이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역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앞에서 수집한 인명 600항목을 대상으로 성은 제외한 채 이름만을 로마자 표기화한 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3. 분석 방법

#### 가. 각 모음의 출현 빈도

로마자 모음 표기의 분석은 두 가지 과제로 진행한다. 하나는 모음자의 빈도 조사이다. 현행 로마자 표기는 다음과 같이 단모음 표기와 이중모음 표기로 나뉜다.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ㅞ	ㅟ	ㅢ	ㅤ
a	eo	o	u	eu	i	ae	e	oe	wi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ㅝ	ㅠ	ㅡ	ㅣ	ㅥ	ㅦ	ㅨ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이 모음들은 로마자 한 글자로 구성된 5개의 표기와 두 글자로 구성된 13개의 표기, 그리고 세 글자로 구성된 3개의 표기로 되어 있다. 한 글자로 구성된 것일 수록 이상적인 표기라고 할 것인데, 제한된 로마자로 표기하는 한 모든 모음을 한 글자로 표기할 수는 없다.

#### 나. 모음 연쇄의 출현 빈도

로마자 모음 표기 분석의 또 하나의 작업 과제는 단모음 혹은 이중모음의 표기가 연쇄된 유형과 그 빈도 분석이다. 자음의 개재 없이 모음이 연쇄된 경우 로마자 표기는 모음 글자들의 나열을 보이게 되어 독법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현행 표기법의 모음 표기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



제점 역시 단편적인 사례만을 대상으로 그 심각성을 논할 수는 없다. 적합한 자료를 대상으로 실제 그 유형과 출현 빈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4. 자료 분석의 실제

이 장에서는 각 자료의 분석 실재를 제시한다. 우선 이 작업은 다음과 같이 로마자 표기를 음절 경계로 나누어 각 출현 모음 글자를 분명히 한 후 그 출현 빈도와 모음 연쇄의 유형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용례집』 분석 자료의 예시>

부산종합운동장-Bu-san

오륙도-O-ryuk-do

용두산공원-Yong-du-san

을숙도-Eul-suk-do

청학동-Cheong-hak-dong

태종대-Tae-jong-dae

해운대해수욕장-Hae-un-dae

이와 같은 자료를 분석할 경우 출현할 수 있는 각 모음의 유형과 가짓수는 아래 표 <III-1>과 같이 443가지이다. 다만 이 경우는 모음이 단독으로 나타난 경우나 2개가 연접된 경우에 국한한 것이다. 모음 글자가 3개 이상 연접할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나(그럴 경우 가능한 가짓수는 급격히 커진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표기는 매우 특이한 사례로 돌릴 수 있으므로 실제 로마자 표기의 실태를 분석하는 데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보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모음이 연쇄되는 경우라도 두 번째 모음이 이중모음인 경우에는 다른 모

음의 연쇄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모음의 연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가능하다.

- 1) 단모음-단모음: (예) ‘a’와 ‘eo’
- 2) 이중모음-단모음: (예) ‘ya’와 ‘eo’
- 3) 단모음-이중모음: (예) ‘a’와 ‘ya’
- 4) 이중모음-이중모음: (예) ‘ya’와 ‘wi’

이 가운데 (1), (2)는 ‘a-eo, ya-eo’인지, ‘ae-o yae-o’인지 경계 인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3), (4)는 y, w가 경계가 되어 ‘a-ya, ya-wi’로 인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모음이 연쇄될 경우 로마자 표기 독법의 난해성을 분석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으므로 위와 같이 모음 연쇄의 두 형은 달리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아래 표 <III-1>에서 음영 처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음 출현 유형의 가짓수는 233가지가 된다.

<III-1> 출현 가능한 1개 또는 2개 모음의 유형

	a	e	i	o	u	eo	eu	ae	oe	ui	ya	yeo	yo	yu	yae	wa	wae	wo	we	wi	개수
a		x																			21
e				x	x																20
i																					22
o		x																			21
u			x																		21
eo		x																			21
eu			x																		21
ae				x	x																20
oe				x	x																20
ui																					22
ya		x																			21
yeo		x																			21
yo																					22

[illegible]

이상의 분석 방법으로 로마자 표기를 분석하였을 때 실제 나타나는 표기의 유형과 빈도를 각 자료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가.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외국어 관광안내표기는 관광용어와 음식메뉴로 나뉘어 있다. 원 자료의 분류를 존중하여 각 자료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광용어는 원자료에서 1,364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일부는 ‘음악분수 Music Fountain’처럼 로마자 표기와 무관한 항목들도 있어 이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1,267항목이다. 참고로, 이 자료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자료를 가공하였다.

1) 영어는 제외한다.

- 지리산 Jirisan Mountain
- 배론성지 Baeron Holy Ground

2) 고유명사의 약어(두자어)는 로마자 표기의 독법과 무관하므로 제외한다.

- 경북대학교 박물관 KNU Museum

3) 회사명 등으로서 그 모음 표기가 로마자 표기법과 무관하게 쓰이는 표기는 제외한다.

- 우방 타워랜드 Woobang Tower Land

4) ‘서울’은 그 표기의 유래가 Se-oul이지만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원리에 따라 독자에게 Seo-ul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자와 같이 분석한다.

5) 국어 단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편입된 단어의 표기는 제외한다.

- 금산 인삼 시장 Geumsan Jinseng Market

6) 원자료의 오폭기인 경우에는 바로잡아 포함한다.

- 봉래산 도유림 Doyou Forest in Mountain Bongnae → Doyu

7) 동일한 단어가 항목에 따라 반복될 경우에도 이를 각각의 항목으로 다룬다. 이는 그것이 각각 별개의 시간과 장소에서 노출된다는 개별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가공한 관광용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II-2> 각 모음의 출현 빈도

모음	빈도	비율	모음	빈도	비율
a	987	27.56	yeo	179	5.00
eo	432	12.06	yo	69	1.93
o	521	14.55	yu	33	0.92
u	398	11.11	yae	0	0.00
eu	115	3.21	ye	41	1.14
i	320	8.94	wa	82	2.29
ae	198	5.53	wae	3	0.08
e	31	0.87	wo	81	2.26

oe	15	0.42	we	0	0.00
wi	22	0.61	ui	12	0.34
ya	42	1.17			
합계				3,581	100.0

<III-3>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

모음 연쇄	빈도	비율	모음 연쇄	빈도	비율
a-a	1	0.69	u-wo	2	1.39
a-o	1	0.69	u-ui	1	0.69
a-u	3	2.08	i-a	5	3.47
a-eu	1	0.69	i-ya	1	0.69
a-i	3	2.08	i-yeo	1	0.69
a-e	1	0.69	i-yu	1	0.69
a-wi	13	9.03	i-ye	1	0.69
a-ya	5	3.47	i-wa	1	0.69
a-yeo	2	1.39	i-wo	1	0.69
a-yu	1	0.69	i-ui	1	0.69
a-ye	1	0.69	ae-a	4	2.78
a-wo	3	2.08	ae-u	2	1.39
a-ui	1	0.69	ae-i	1	0.69
eo-o	1	0.69	ae-yeo	1	0.69
eo-u	7	4.86	ae-yu	2	1.39
eo-i	2	1.39	ae-wa	1	0.69
eo-yeo	1	0.69	ae-wo	8	5.56
eo-wo	17	11.80	e-a	1	0.69
o-a	5	3.47	e-i	1	0.69
o-eo	1	0.69	e-yeo	3	2.08
o-u	1	0.69	oe-a	1	0.69
o-eu	1	0.69	oe-yeo	2	1.39
o-ya	2	1.38	yo-a	1	0.69
o-yu	1	0.69	yu-a	2	1.39

o-wae	1	0.69	wa-a	3	2.08
o-wo	3	2.08	wa-eo	1	0.69
u-a	4	2.78	wa-o	1	0.69
u-i	1	0.69	wa-u	1	0.69
u-yeo	3	2.08	wa-ya	1	0.69
u-yu	3	2.08	wae-wo	1	0.69
u-wa	1	0.69			
합계				144	100.0

이 모음 연쇄는 우선 그 절대적 출현 빈도가 낮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음절 경계의 가능한 경우는 C-C(자음-자음) 연쇄, C-V(자음-모음) 연쇄, V-C(모음-자음) 연쇄, V-V(모음-모음) 연쇄의 네 가지가 있으나 모음의 연쇄는 다음과 같이 전체 중 6%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관광용어의 총 음절 경계는 2,311개이다).

#### <III-4> 모음 연쇄의 출현 비율

총 음절 경계 수	모음 연쇄 수	모음 연쇄 출현 비율
2,311	144	6.23

더욱이 앞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모음 연쇄가 모두 동일한 독해의 부담을 갖는 것도 아니다. 즉 두 번째 모음이 이중 모음인 경우에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끼어드는 형국이 되어 모음과 모음이 연쇄된 경우에 비하여 독해의 어려움이 훨씬 완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Haeinsa(해인사), Oeam(외암민속마을), 대아저수지 Daea(대아저수지)에서는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하는지 어려움이 크지만, Oeyeondo(외연도), Daeyulli(대율리대청), Daewangam(대왕암)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반모음 글자 y, w로 인해 훨씬 작아진다. y, w가 뒤의 모음과 어울린다는 점이 인식되어 oe-yeo, ae-yu, ae-wa로 쉽게 경계 구분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번째 모음이 이중모음인 경우를 제외하여 빈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태도에서 관광 용어의 모음 연쇄의 출현 빈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III-5>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y, w 개입 유형 제외)

모음 연쇄	빈도	비율	모음 연쇄	빈도	비율
a-a	1	1.67	u-ui	1	1.67
a-o	1	1.67	i-a	5	8.33
a-u	3	5.00	i-ui	1	1.67
a-eu	1	1.67	ae-a	4	6.67
a-i	3	5.00	ae-u	2	3.33
a-e	1	1.67	ae-i	1	1.67
a-ui	1	1.67	e-a	1	1.67
eo-o	1	1.67	e-i	1	1.67
eo-u	7	11.67	oe-a	1	1.67
eo-i	2	3.33	yo-a	1	1.67
o-a	5	8.33	yu-a	2	3.33
o-eo	1	1.67	wa-a	3	5.00
o-u	1	1.67	wa-eo	1	1.67
o-eu	1	1.67	wa-o	1	1.67
u-a	4	6.67	wa-u	1	1.67
u-i	1	1.67			
합계				60	100.0

실제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는 이것이다. 이 경우 모음의 연쇄는 60개로 줄어들며 그 점유율 역시 다음과 같이 2.60%로 낮아진다.

<III-6> 모음 연쇄의 출현 비율(y, w 개입 유형 제외)

총 음절 경계 수(A)	모음 연쇄 수(B)		총 음절 경계 수 대비 비율(B/A)
	글자 수	합	
2,311	2글자	27	1.17
	3글자	32	1.38
	4글자 이상	1	0.04
		60	2.60

이 모음 연쇄는 2글자인 경우와 3글자 이상인 경우가 있는데 독법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인식되는 경우는 3글자 이상인 경우이다. 물론 2개의 모음 글자 연쇄로 인한 독법의 어려움도 문제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로마자의 모음 글자가 5개이고 표기해야 할 국어의 단모음 수는 그 두 배인 10개인 상황에 기인하는 일면도 있는데다가 아무래도 독법의 혼란도 3글자인 경우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3글자 이상의 연쇄는 위에서 보듯이 34개로서 전체 음절 경계 수 대비 1.38%에 그친다. 그나마 이것도 연쇄의 앞 음절에 이중모음이 놓인 유형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yo-a, wa-u처럼 연쇄의 앞에 이중모음이 오는 경우 반모음 글자(y, w)와 뒤의 모음 글자를 한 단위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y-oa, w-au와 같이 인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독법의 혼란을 보이는 3글자 이상의 모음 연쇄 비율 1.38%마저도 그만큼 더 줄어든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표기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표기법의 실용적인 용도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예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현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sup>14)</sup>

## 나. 음식명

음식명은 원자료는 1,046항목이며 로마자 표기와 무관한 항목을 삭제하고 일부는 1항목인 것을 2항목으로 나누는 등 자료를 가공하여 최종적으로 1,005개 항목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참고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써 가공하였다.

- 1) 영어는 제외한다.
  - 해물스파게티 haemul-spaghetti
  - 치즈피자 cheese-pizza

---

14) (3개 모음의 연쇄 확인)(a-e/ae와 같은 중의적 표기 상황 추가)



2) 외국어가 원어에서 멀어지게 변한 단어는 그 변한 국어음을 대상으로 로마자 표기를 한 경우는 포함한다.

- (음) 치킨가스 chicken-gaseu
- (음) 카레라이스 kare-rice

3) 국어 단어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외국어로 편입된 단어라도 그 표기가 국어음을 바탕으로 한 로마자 표기의 전면적인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포함한다.

- 김치찌개 kimchi-jjigae

4) 원자료에서 오표기가 분명한 경우에는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수정하였다.

- 조기탕 jogiitang → jogitang
- 곤드레나물비빔밥 gondre-namul-bibimbap → gondeure
- 도리뱅뱅이무침 dori-bangbangi-muchim → baengbaengi
- 목모듬 muk-modeum → modum

5) 한글 표기가 정서법에 어긋났지만 그를 바탕으로 한 로마자 표기가 이 연구의 주제인 모음 표기의 빈도와는 무관한 경우에는 원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 헛제사밥 heotjesabap
- 성계국 seonggegu

6) 원자료에서 아라비아 숫자의 국어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면서도 일부 누락한 경우에는 일관되게 로마자 표기를 하여 자료화하였다.

- 닭튀김 (1마리/반마리) dak-twigim (1mari/ban mari) → han mari

7) 원자료에서 괄호 안에 이칭(異稱)을 표기한 경우 두 항목으로 나누었다.

- 금풍생이구이(셋서방고기) geumpungsaengi-gui(saetseobang-gogi)

8) ‘구이’, ‘탕’, ‘찌개’ 등 음식명에서 빈번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도 이것이 전체 음식명에 포함되어 각각 별개로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음식명의 일부로 다루었다.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가공한 음식용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II-7> 각 모음의 출현 빈도

모음	빈도	비율	모음	빈도	비율
a	864	20.08	yeo	110	2.56
eo	391	9.11	yo	13	0.30
o	624	14.50	yu	41	0.95
u	712	16.55	yae	0	0.00
eu	115	2.67	ye	15	0.35
i	764	17.76	wa	58	1.35
ae	353	8.21	wae	14	0.33
e	59	1.37	wo	6	0.14
oe	75	1.74	we	0	0.00
wi	27	0.63	ui	0	0.00
ya	61	1.42			
합계				4,302	100.0

음식명의 자료는 앞서 관광용어에 비하여 항목 수가 적으면서 모음 글자 출현 빈도는 더 높다. 이는 자료의 특성상 g-u-i(구이), 새우(sae-u), mae-u-n-tang(매운탕)처럼 모음 글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서 높은 빈도로 반복되는 표기들이 그 원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송이칼국수 ja-yeon-song-i-kal-guk-su’처럼 관광용어에 비하여 음식명의 표기가 긴 예가 많은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즉 음식명 자료의 독특하고 개별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는 다음과 같다.

<III-8>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

모음 연쇄	빈도	비율	모음 연쇄	빈도	비율
a-o	1	0.48	i-a	6	2.87
a-u	1	0.48	i-eo	1	0.48
a-i	1	0.48	i-o	1	0.48
a-yeo	6	2.87	i-u	1	0.48
a-wa	1	0.48	i-ya	8	3.83
eo-a	2	0.96	i-yeo	6	2.87
eo-ya	1	0.48	i-yo	1	0.48
o-a	2	0.96	ae-a	1	0.48
o-i	3	1.44	ae-u	50	23.92
o-yu	1	0.48	ae-yu	1	0.48
u-a	1	0.48	e-a	1	0.48
u-eo	1	0.48	e-o	2	0.96
u-i	81	38.76	e-yeo	5	2.39
u-ya	1	0.48	e-yu	3	1.44
u-yo	3	1.44	yu-eo	1	0.48
u-yu	11	5.26	wa-i	1	0.48
u-wa	3	1.44			
합계				209	100.0

앞서 관광용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음 연쇄에 반모음 글자 y, w가 개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음의 연쇄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I-9>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y, w 개입 유형 제외)

모음 연쇄	빈도	비율	모음 연쇄	빈도	비율
a-o	1	0.63	i-eo	1	0.63
a-u	1	0.63	i-o	1	0.63
a-i	1	0.63	i-u	1	0.63
eo-a	2	1.27	ae-a	1	0.63

o-a	2	1.27	ae-u	50	31.65
o-i	3	1.90	e-a	1	0.63
u-a	1	0.63	e-o	2	1.27
u-eo	1	0.63	yu-eo	1	0.63
u-i	81	51.27	wa-i	1	0.63
i-a	6	3.80			
합계				158	100.0

이 경우 모음의 연쇄는 158개로 줄어들지만, 관광용어에 비하여 절대적 수치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역시 g-u-i(구이), 새우(sae-u), mae-u-n-tang(매운탕)의 반복적 표기에서 보이는 u-i(81개), ae-u(5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적 수치가 높은 것과 달리 음식명의 총 음절 경계 수(3,297개)에 대비한 이들 모음 연쇄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4.79%로서 오히려 관광용어의 그것보다 낮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음식명의 경우 관광용어에 비해 항목 수는 적 으면서도 긴 표기들이 많아 절대적인 음절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III-10> 모음 연쇄의 출현 비율(y, w 개입 유형 제외)

총 음절 경계 수(A)	모음 연쇄 수(B)			총 음절 경계 수 대비 비율(B/A)	
	글자 수		합		
3,297	2글자	101	158	3.06	4.79
	3글자	56		1.70	
	4글자 이상	1		0.03	

결과적으로 음식명의 경우 모음 연쇄의 빈도가 높은 듯하여도 실제로는 4.79%에 머물 정도로 낮으며 특히 3글자 이상이 연쇄된 경우는 1.73%로서 앞서 관광용어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정도이다. 특히 이 비율조차 g-u-i(구이), 새우(sae-u) 등 반복적 표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모음 글자 3자의 연쇄적

표기에 따른 문제는 음식명의 경우에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할 만하다.

## 다. 기차역명

기차역명은 35개 철도선 총 753개 역명이 있다. 이 자료를 아래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가공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656개 기차역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 영어 표기는 제외한다.

- 청주공항 Cheongju Int'l Airport <충북선>

2)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지 않는 표기는 제외한다.

- 경원대 Kyungwon Univ.

3)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모음의 경우 그 표기법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 외대앞 Hankuk

4) 동일한 지역의 기차역명이 노선에 따라 각각 분산되어 있는 경우 1개의 항목으로 처리한다.

- 가좌 Gajwa <경의선-경의본선>/<경의선-수색객차출발선>/<경의선-용산선>

- 동해 Donghae <영동선-삼척선>/<동해선-북평선>/<영동선-묵호항선>

- 동백산 Dongbaeksan <영동선-영동본선>/<태백선-태백본선>

5) 다른 지역의 역명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처리한다.

- 중앙 Jungang <경원선-경원본선> / 중앙 Jungang <안산선>

- 평촌 Pyeongchon <과천선> / 평촌 Pyeongchon <경전선-경전본선>

6) 환승역으로서 동일한 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 노선에 따라 다른 역명을 쓸 경우에는 별개의 항목으로 처리한다.

- 한대앞 Hangyang Ansan <안산선> / 한대앞 Handaeap <경부선-수인선>

7) 동일한 역이 둘 이상의 복수명칭(주역명과 부역명)을 사용할 경우 분리한다.

- 문산(운천) Munsan(Uncheon)
- 분천(양원) Buncheon(Yangwon)

8) 다만 부역명이 주역명과 동일한 표기를 반복할 경우에는 하나로 다룬다.

- 망상(망상해수욕장) Mangsang(Mangsang)

9) ‘서울’은 그 표기의 유래가 Se-oul이지만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원리에 따라 독자에게 Seo-ul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자와 같이 분석한다.

이상의 원칙에 따라 가공한 기차역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II-11> 각 모음의 출현 빈도

모음	빈도	비율	모음	빈도	비율
a	298	20.62	yeo	71	4.91
eo	196	13.56	yo	24	1.66
o	236	16.33	yu	8	0.55
u	166	11.49	yae	0	0.00
eu	44	3.04	ye	17	1.18
i	160	11.07	wa	46	3.18
ae	77	5.32	wae	1	0.07
e	11	0.76	wo	36	2.50
oe	7	0.48	we	0	0.00
wi	2	0.14	ui	5	0.35
ya	40	2.77			
합계				1,445	100.0

<III-12>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

모음 연쇄	빈도	비율	모음 연쇄	빈도	비율
a-u	1	2.27	u-yo	1	2.27
a-wi	1	2.27	u-wo	2	4.55
a-ya	2	4.55	i-a	1	2.27
a-wo	1	2.27	i-ya	1	2.27
eo-u	3	6.82	i-wo	3	6.82
o-a	2	4.55	ae-a	1	2.27
o-o	1	2.27	ae-u	3	6.82
o-i	2	4.55	ae-i	1	2.27
o-yo	1	2.27	ae-ya	3	6.82
o-wo	1	2.27	ya-wo	1	2.27
u-a	4	9.09	ye-wo	2	4.55
u-i	2	4.55	wa-ya	1	2.27
u-yeo	2	4.55	ui-wa	1	2.27
합계				44	100.0

앞의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모음 연쇄 사이에 반모음 글자 y, w가 개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음 연쇄의 유형과 빈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III-13>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y, w 개입 유형 제외)

모음 연쇄	빈도	비율	모음 연쇄	빈도	비율
a-u	1	4.76	u-i	2	9.52
eo-u	3	14.29	i-a	1	4.76
o-a	2	9.52	ae-a	1	4.76
o-o	1	4.76	ae-u	3	14.29
o-i	2	9.52	ae-i	1	4.76
u-a	4	19.05			
합계				21	100.0

이 기차역명의 총 음절 경계 수는 789개이다. 이와 대비하여 이들 모음 연쇄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2.66%에 머문다.

<III-14> 모음 연쇄의 출현 비율(y, w 개입 유형 제외)

총 음절 경계 수(A)	모음 연쇄 수(B)		총 음절 경계 수 대비 비율(B/A)	
	글자 수	합		
789	2글자	13	1.65	2.66
	3글자	8	1.01	
	4글자 이상	0	0	

특히 3글자 이상이 연쇄적으로 표기된 경우도 전체 음절 경계 수 가운데 1.01%로서 앞서의 경우들과 비슷하게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 라. 지하철역명

지하철은 아래 5개 지역의 노선에 총 623개 역명이 있다.

1.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서울 1~8호선,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 과천선, 분당선, 안산선, 일산선, 중앙선, 인천 1호선
2. 부산 지하철: 부산 1~3호선
3. 대전 지하철
4. 대구 지하철: 대구 1~2호선
5. 광주 지하철

이 역명을 다음의 세부 기준에 따라 가공한 결과 총 593항목을 분석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1) 영어 표기는 제외한다.

- 시청 City Hall
- 올림픽공원 Olympic Park
- 교대 Seoul Nat'l Univ. of Education
- 김포공항 Gimpo Int'l Airport

2) 현행 로마자 표기법과 다른 표기는 제외한다.

- 건대입구 Konkuk Univ.
- 이대 Ehwa Womans Univ.
- 부경대 Pukyong Univ. (부산)
- 영대병원 Yeungnam University Hospital (대구)
- 계명대 Keimyung Univ. (대구)
- 칠성대 Chilsungdae (대전)

3) 다만 모음 표기가 현행 표기법과 일치할 경우에는 포함한다.

- 성신여대입구(돈암) Seongshin Univ. (Donam)
- 상도(중앙대앞) Sangdo (Chung-Ang Univ.)
- 부산대학앞 Pusan Univ. (부산)
- 목원대 Mokwon Univ. (대전)

4) 환승역으로서 둘 이상의 노선에 동일한 역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개의 항목으로 처리한다.

- 을지로3가 Eul ji ro sam ga (서울 2호선) / (서울 3호선)

5) 다만 지역이 다른 역이 이름만 같을 경우에는 별개의 항목으로 처리한다.

- 신천 Sincheon (서울 2호선) / 신천 Sincheon (대구 1호선)

- 용산 yongsan (경부선) / 용산 yongsan (대구 2호선)
- 학동 hakdong (서울 7호선) / 학동 hakdong(광주)

6) 한 역에 복수명칭(주역명과 부역명)이 있을 경우 각각 분리한다.

- 구의(광진구청) Guui (Gwangjin-gu)
- 신정(은행정) Sinjeong (Eunhaengjeong)
- 새절(신사) Saejeol (Sinsa)

7) 다만 부역명이 주역명과 동일한 표기를 반복할 경우에는 하나로 다룬다.

- 부천(부천대입구) Bucheon (Bucheon Univ.)

8) 인터넷 검색엔진 제공 역명 표기(1)와 해당 지하철 홈페이지 제공 역명 표기(2)가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의 역명을 따른다.

- 대공원 (1) Daegu grand park (2) Daegongwon(grand park) (대구 2호선)
- 경대병원 (1) Kyungpook Nat'l Univ. Hosp. (2) Kyung-dae(KNU) hospital (대구 2호선)

9) 다만 지하철 홈페이지의 표기 누락이 분명한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 엔진의 자료를 따른다.

- 운천(호남대입구) (1) Uncheon(Honam Univ.) (2) Honam University (광주)

10) ‘서울’은 그 표기의 유래가 Se-oul이지만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원리에 따라 독자에게 Seo-ul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자와 같이 분석한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총 593항목의 지하철역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II-15> 각 모음의 출현 빈도

모음	빈도	비율	모음	빈도	비율
a	323	23.14	yeo	57	4.08
eo	170	12.18	yo	18	1.29
o	256	18.34	yu	10	0.72
u	166	11.89	yae	0	0.00
eu	41	2.94	ye	12	0.86
i	146	10.46	wa	33	2.36
ae	89	6.38	wae	0	0.00
e	14	1.00	wo	26	1.86
oe	4	0.29	we	0	0.00
wi	3	0.21	ui	5	0.36
ya	23	1.65			
합계				1,396	100.0

<III-16>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

모음 연쇄	빈도	비율	모음 연쇄	빈도	비율
a-a	1	2.04	u-wo	1	2.04
a-wi	2	4.08	u-ui	1	2.04
a-ya	2	4.08	i-a	2	4.08
a-wo	1	2.04	ae-a	1	2.04
eo-u	8	16.33	ae-o	2	4.08
eo-yeo	1	2.04	ae-u	1	2.04
o-o	2	4.08	ae-ya	1	2.04
o-eu	2	4.08	ae-yeo	2	4.08
o-i	1	2.04	ae-wo	1	2.04
o-yo	1	2.04	ya-wo	1	2.04
o-wo	2	4.08	yeo-ui	2	4.08
u-a	4	8.16	ye-o	1	2.04
u-i	1	2.04	ye-ya	1	2.04
u-yeo	2	4.08	ui-wa	1	2.04
u-yu	1	2.04			
합계				49	100.0

앞의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반모음 글자 y, w를 자음으로 인식하고, a, e, i, o, u 5글자만의 모음 연쇄를 보면 다음과 같다.

<III-17>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y, w 개입 유형 제외)

모음 연쇄	빈도	비율	모음 연쇄	빈도	비율
a-a	1	3.45	u-ui	1	3.45
eo-u	8	27.59	i-a	2	6.90
o-o	2	6.90	ae-a	1	3.45
o-eu	2	6.90	ae-o	2	6.90
o-i	1	3.45	ae-u	1	3.45
u-a	4	13.79	yeo-ui	2	6.90
u-i	1	3.45	ye-o	1	3.45
합계				29	100.0

이 지하철역명의 총 음절 경계 수는 801개이다. 이와 대비하여 이들 모음 연쇄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3.62%에 머문다.

<III-18> 모음 연쇄의 출현 비율(y, w 개입 유형 제외)

총 음절 경계 수(A)	모음 연쇄 수(B)		총 음절 경계 수 대비 비율(B/A)	
	글자 수	합		
801	2글자	11	1.37	3.62
	3글자	16	2.00	
	4글자 이상	2	0.25	
		29		

특히 3글자 이상(3글자와 5글자)가 연쇄적으로 표기된 경우도 전체 음절 경계 수 가운데 2.25%로서 앞서의 경우들과 비슷하게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지하철역명은 yeo-ui와 같은 연쇄를 보여 주는데, 반모음 글자 y를 제외한다고 해도 4개의 모음 글자가 연쇄되는 특징을 보인다.

- 여의나루 Yeouinaru
- 여의도 Yeouido

이와 같이 모음 글자가 4개나 연속되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로서 분명 표기법에 대하여 회의감이 들게 할 여지도 있는 것이지만 앞의 관광용어와 음식명에서는 볼 수 없었고 지하철역명에서도 0.25%의 빈도를 보이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마. 행정구역명

행정구역명은 도·시·군·읍·면·동·리의 총 20,825 항목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행정구역명은 동일 지명도 있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별개의 항목으로 다루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제 행정구역 수와 분석 대상의 항목 수가 일치한다.

또 행정구역명에는 영어 표기나 고유명사에 따른 이질적인 표기도 없으므로 자료를 가공하기 위한 별도의 세부 기준은 없다. ‘서울 Seoul’을 앞서와 같은 이유로 Seo-ul로 분석하는 정도만 유일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II-19> 각 모음의 출현 빈도

모음	빈도	비율	모음	빈도	비율
a	10,032	15.93	yeo	3,261	5.18
eo	5,204	8.26	yo	1,169	1.86
o	10,984	17.44	yu	407	0.65
u	4,329	6.88	yae	0	0.00
eu	1,536	2.44	ye	570	0.91

i	19,605	31.14	wa	1,267	2.01
ae	2,200	3.49	wae	11	0.02
e	153	0.24	wo	960	1.52
oe	352	0.56	we	0	0.00
wi	81	0.13	ui	118	0.19
ya	726	1.15			
합계				62,965	100.0

이 결과는 특히 모음 ‘i’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행정구역 단위명 ‘ri’의 표기가 통계에 포함된 결과이다. 다른 자료와 달리 행정구역명은 ‘myeon’(면), ‘dong’(동), ri(리) 등의 행정구역 단위명 표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므로 그 표기의 통계적 성격을 달리 다룰 필요가 있다.

행정구역 단위는 대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빈도로 총 21,187개가 나타난다.

#### <III-20> 행정구역 단위 분포

도	9	구	91	동	3,536
시	77	읍	211	리	15,543
군	86	면	1,205	가	429
합계	21,187				

행정구역 단위 수가 전체 행정구역명 항목 수(20,825)보다 많은 이유는 그것이 행정구역명의 최종 표시명이 아니면서 다음과 같이 그 행정구역명 안에 포함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문래동4가 Mullae-dong 4(sa)-ga
- 중앙로2가동 Jungangno 2(i)-ga-dong

또 ‘시’는 특별시(1)와 광역시(6)에는 행정구역 단위 표기가 없으며, ‘로’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제5항)의 관점에서는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등 행정구역 단위수와 전체 항목 수는 다소 불일치하는 데가 있다. 그 결과 행정구역 단위에 포함된 모음 글자(do, si, gun, gu, eup, myeon, dong, ri, ga)를 제외하면 행정구역명에 나타난 모음 글자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III-21> 각 모음의 출현 빈도(구역단위명 제외)

모음	빈도	비율	모음	빈도	비율
a	9,606	22.79	yeo	2,056	7.74
eo	5,204	9.49	yo	1,169	2.77
o	7,808	18.53	yu	407	0.97
u	4,152	9.85	yae	0	0.00
eu	1,325	3.14	ye	570	1.35
i	3,978	9.44	wa	1,267	3.01
ae	2,200	5.22	wae	11	0.03
e	153	0.36	wo	960	2.28
oe	352	0.84	we	0	0.00
wi	81	0.19	ui	118	0.28
ya	726	1.72			
합계				42,143	100.0

모음 연쇄의 경우는 이러한 행정구역명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행정구역명은 자음으로 시작되고 마지막 음절을 구성하기 때문에 다른 음절과의 경계에서 모음 연쇄를 구성하는 경우가 없다. ‘읍’(eup)만 유일하게 앞의 음절과 모음 연쇄를 구성한다. 따라서 모음 연쇄의 경우에는 행정구역 단위명의 제외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행정구역명의 모음 연쇄의 유형과 빈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III-22>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

모음 연쇄	빈도	비율	모음 연쇄	빈도	비율
a-a	27	2.24	i-a	20	1.66
a-eo	2	0.17	i-eo	1	0.08
a-o	11	0.91	i-o	1	0.08
a-u	9	0.75	i-u	1	0.08
a-eu	20	1.66	i-eu	10	0.83
a-i	29	2.41	i-i	8	0.66
a-ae	1	0.08	i-ya	10	0.83
a-e	1	0.08	i-yeo	2	0.17
a-ya	33	2.74	i-yu	1	0.08
a-yeo	5	0.42	i-wa	1	0.08
a-yo	1	0.08	i-wo	19	1.58
a-yu	5	0.42	i-ui	1	0.08
a-ye	1	0.08	ae-a	40	3.32
a-wa	5	0.42	ae-o	2	0.17
a-wo	24	1.99	ae-u	15	1.25
a-ui	3	0.25	ae-eu	6	0.50
eo-a	6	0.50	ae-i	17	1.41
eo-o	6	0.50	ae-oe	1	0.08
eo-u	8	0.66	ae-wi	1	0.08
eo-eu	16	1.33	ae-ya	26	2.16
eo-i	3	0.25	ae-yeo	4	0.33
eo-oe	2	0.17	ae-yo	3	0.25
eo-ya	3	0.25	ae-yu	8	0.66
eo-yeo	4	0.33	ae-ye	1	0.08
eo-yo	1	0.08	ae-wa	1	0.08
eo-yu	3	0.25	ae-wo	30	2.49
eo-wa	3	0.25	ae-ui	8	0.66
eo-wo	8	0.66	e-a	1	0.08
eo-ui	5	0.42	e-o	1	0.08
o-a	55	4.57	e-eu	1	0.08



o-o	15	1.25	wi-wo	1	0.08
o-u	5	0.42	ya-eu	3	0.25
o-eu	41	3.41	ya-i	1	0.08
o-i	78	6.48	ya-wo	1	0.08
o-ya	36	2.99	yeo-u	1	0.08
o-yeo	7	0.58	yeo-eu	1	0.08
o-yo	3	0.25	yeo-ya	1	0.08
o-yu	7	0.58	yeo-ye	1	0.08
o-wa	4	0.33	yeo-wo	1	0.08
o-wo	45	3.74	yeo-ui	5	0.42
o-ui	1	0.08	yo-a	8	0.66
u-a	78	6.48	yo-u	1	0.08
u-eo	8	0.66	yo-eu	2	0.17
u-o	1	0.08	yo-i	1	0.08
u-u	5	0.42	yo-wo	6	0.50
u-eu	23	1.91	yu-a	6	0.50
u-i	21	1.74	yu-eo	1	0.08
u-oe	1	0.08	yu-u	1	0.08
u-ya	20	1.66	yu-ya	1	0.08
u-yeo	17	1.41	yu-wo	3	0.25
u-yo	11	0.91	ye-a	2	0.17
u-yu	5	0.42	ye-eu	3	0.25
u-ye	1	0.08	ye-ya	6	0.50
u-wa	7	0.58	ye-yu	1	0.08
u-wo	42	3.49	ye-wo	12	1.00
u-ui	3	0.25	ye-ui	1	0.08
e-i	1	0.08	wa-a	10	0.83
e-yo	1	0.08	wa-u	11	0.91
e-wo	7	0.58	wa-eu	8	0.66
oe-a	4	0.33	wa-i	1	0.08
oe-eo	2	0.17	wa-ya	18	1.50
oe-u	1	0.08	wa-yeo	5	0.42
oe-i	2	0.17	wa-yo	1	0.08

oe-ya	2	0.17	wa-yu	1	0.08
oe-yeo	1	0.08	wa-wo	9	0.75
oe-yu	1	0.08	wa-ui	2	0.17
oe-ye	1	0.08	wae-a	1	0.08
oe-wo	1	0.08	wae-u	1	0.08
wi-a	3	0.25	ui-a	3	0.25
wi-u	1	0.08	ui-i	1	0.08
wi-eu	1	0.08	ui-ya	1	0.08
wi-i	1	0.08	ui-wa	1	0.08
wi-ya	3	0.25			
합계				1,204	100.0

이러한 결과는 대상 표본이 크면 그만큼 다양한 유형의 모음 연쇄가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 다양한 유형에 비하여 전체 모음 연쇄의 출현 빈도는 총 1,204로서 행정구역명의 전체 음절 경계 수 42,156의 2.86%에 불과할 정도로 상대적인 비율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위 자료를 보면 많은 모음 연쇄 유형들의 출현 빈도가 1, 2회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앞의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반모음 글자 y, w가 개입한 경우를 제외한 모음 연쇄의 빈도를 보도록 하자.

<III-23>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y, w 개입 유형 제외)

모음 연쇄	빈도	비율	모음 연쇄	빈도	비율
a-a	27	3.81	ae-eu	6	0.85
a-eo	2	0.28	ae-i	17	2.40
a-o	11	1.55	ae-oe	1	0.41
a-u	9	1.27	ae-ui	8	1.13
a-eu	20	2.82	e-a	1	0.41
a-i	29	4.09	e-o	1	0.41
a-ae	1	0.41	e-eu	1	0.41
a-e	1	0.41	e-i	1	0.41

a-ui	3	0.42	oe-a	4	0.56
eo-a	6	0.85	oe-eo	2	0.28
eo-o	6	0.85	oe-u	1	0.41
eo-u	8	1.13	oe-i	2	0.28
eo-eu	16	2.26	wi-a	3	0.42
eo-i	3	0.42	wi-u	1	0.41
eo-oe	2	0.28	wi-eu	1	0.41
eo-ui	5	0.71	wi-i	1	0.41
o-a	55	7.76	ya-eu	3	0.42
o-o	15	2.12	ya-i	1	0.41
o-u	5	0.71	yeo-u	1	0.41
o-eu	41	5.78	yeo-e	1	0.41
o-i	78	11.00	yeo-ui	5	0.71
o-ui	1	0.41	yo-a	8	1.13
u-a	78	11.00	yo-u	1	0.41
u-eo	8	1.13	yo-eu	2	0.28
u-o	1	0.41	yo-i	1	0.41
u-u	5	0.71	yu-a	6	0.85
u-eu	23	3.24	yu-eo	1	0.41
u-i	21	2.96	yu-u	1	0.41
u-oe	1	0.41	ye-a	2	0.28
u-ui	3	0.42	ye-eu	3	0.42
i-a	20	2.82	ye-ui	1	0.41
i-eo	1	0.41	wa-a	10	1.41
i-o	1	0.41	wa-u	11	1.55
i-u	1	0.41	wa-eu	8	1.13
i-eu	10	1.41	wa-i	1	0.41
i-i	8	1.13	wa-ui	2	0.28
i-ui	1	0.41	wae-a	1	0.41
ae-a	40	5.64	wae-u	1	0.41
ae-o	2	0.28	ui-a	3	0.42
ae-u	15	2.12	ui-i	1	0.41
합계				709	100.0

이 행정구역명의 총 음절 경계 수는 42,156개이다. 위에서 보듯 모음 연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한 것과 대조적으로 총 음절 경계 수와 대비하여 이들 모음 연쇄의 출현 빈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1.68%에 머문다.

<III-24> 모음 연쇄의 출현 비율(y, w 개입 유형 제외)

총 음절 경계 수(A)	모음 연쇄 수(B)		총 음절 경계 수 대비 비율(B/A)		
	글자 수	합			
42,156	2글자	368	0.87	1.68	
	3글자	270	0.64		
	4글자 이상	70	0.17		

특히 3글자 이상(3글자~5글자)이 연쇄적으로 표기된 경우도 전체 음절 경계 수 가운데 0.81%로서 앞서의 경우들과 비슷하게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행정구역명의 경우 전체적으로 연쇄 유형이 다양한 것처럼 반모음 글자(y, w)를 제외한 모음(a, e, i, o, u)이 4개 이상이 연쇄된 유형도 9가지나 나타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ae-eu(6): 대은리 Daeun-ri, 매음리 Maeum-ri, 평해읍 Pyeonghae-eup

ae-oe(1): 대외동 Daeoe-dong

ae-ui(8): 내의리 Naeui-ri, 대의동2가 Daeui-dong 2-ga

eo-eu(16): 어은동 Eoeun-dong, 어음리 Eoeum-ri, 내서읍 Naeseo-eup

eo-oe(2): 서외리 Seoee-ri

eo-ui(5): 거의동 Geoui-dong

oe-eo(2): 외어리 Oeeo-ri, 회억리 Hooeok-ri

yeo-eu(1): 부여읍 Buyeo-eup

yeo-ui(5): 여의동 Yeoui-dong, 여의도동 Yeouido-dong, 여의리 Yeoui-ri

물론 여기에는 ‘평해읍 Pyeonghae-eup’, ‘내서읍 Naeseo-eup’처럼 행정구역 단위명 ‘읍’(eup)에 의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의 예들도 고루 분포한다는 점에서 분명 주목을 요한다.

다만 앞에서 다른 예들의 경우를 해석한 것처럼 이들의 빈도가 0.1% 언저리에 머물 정도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점도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기들이 분명 독법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낮은 분포율은 그만큼 표기법 전반의 체제에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제한된 조치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여지도 남기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 바. 인명

인명은 성별 및 연령대별로 성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10~60대까지 6등급으로 나누어 남녀 각 50명씩 총 600명의 인명을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을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 시기의 졸업 앨범을 자료로 삼아 특정 그룹의 인명을 중심으로 하되 목표 숫자에 부족할 경우 무작위로 같은 연령대 인명을 더하였다.

<III-25> 연령 및 성별 인명 자료 수

연령 \ 성별	남자	여자	합계
10대	50	50	100
20대	50	50	100
30대	50	50	100
40대	50	50	100
50대	50	50	100
60대 이상	50	50	100
합계	300	300	600

수집한 인명을 대상으로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여 자료화하였다. 여권명 표기 등 실제 인명 표기 자료들을 자료로 삼지 않은 까닭은 그 표기들은 현행 로마자 표기법과 달라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성의 로마자 표기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름만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II-26> 각 모음의 출현 빈도

모음	빈도	비율	모음	빈도	비율
a	127	10.62	yeo	179	14.97
eo	168	14.05	yo	15	1.25
o	112	9.36	yu	26	2.17
u	184	15.38	yae	0	0.00
eu	43	3.60	ye	20	1.67
i	162	13.55	wa	27	2.26
ae	59	4.93	wae	0	0.00
e	5	0.42	wo	16	1.34
oe	1	0.08	we	0	0.00
wi	3	0.25	ui	42	3.51
ya	7	0.59			
합계				1,196	100.0

이 인명의 모음 분포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yeo의 빈도가 높다는 점이다. 다른 자료들은 3~7% 정도에 머무는 데 비하여 인명은 14.97%로서 약 2~3배에 이르는 빈도를 보여 주고 있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한 문제점으로 1음절의 표기 글자 수가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IV.3.다 참조) 인명의 경우 yeo의 모음 글자의 빈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표기 글자 수가 많아져 가독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III-27>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

모음 연쇄	빈도	비율	모음 연쇄	빈도	비율
a-o	1	1.85	ae-eu	1	1.85
a-eu	1	1.85	ae-yeo	2	3.70
a-yeo	4	7.41	ae-yo	1	1.85
o-u	1	1.85	ae-yu	1	1.85
o-yeo	3	5.56	ae-wo	1	1.85
o-yu	1	1.85	e-eo	1	1.85
o-wo	1	1.85	e-u	1	1.85
u-u	1	1.85	e-wa	1	1.85
u-i	1	1.85	wi-yeo	2	3.70
u-ae	1	1.85	yeo-o	1	1.85
u-yeo	2	3.70	yeo-u	1	1.85
u-yo	1	1.85	yo-wo	1	1.85
u-ye	1	1.85	yu-ye	1	1.85
i-o	1	1.85	yu-wo	1	1.85
i-eu	3	5.56	ye-eo	1	1.85
i-ae	1	1.85	ye-eu	1	1.85
i-yeo	8	14.81	ye-yeo	2	3.70
ae-u	1	1.85	ye-wo	1	1.85
합계				54	100.0

다시 앞의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반모음 글자 y, w가 개입한 경우를 제외한 모음 연쇄의 빈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III-28>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y, w 개입 유형 제외)

모음 연쇄	빈도	비율	모음 연쇄	빈도	비율
a-o	1	5.26	ae-u	1	5.26
a-eu	1	5.26	ae-eu	1	5.26
o-u	1	5.26	e-eo	1	5.26

u-u	1	5.26	e-u	1	5.26
u-i	1	5.26	yeo-o	1	5.26
u-ae	1	5.26	yeo-u	1	5.26
i-o	1	5.26	ye-eo	1	5.26
i-eu	3	15.79	ye-eu	1	5.26
i-ae	1	5.26			
합계				19	100.0

이 인명의 총 음절 경계 수는 596개이다. 이와 대비하여 이들 모음 연쇄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3.19%에 머문다.

<III-29> 모음 연쇄의 출현 비율(y, w 개입 유형 제외)

총 음절 경계 수(A)	모음 연쇄 수(B)			총 음절 경계 수 대비 비율(B/A)	
	글자 수		합		
596	2글자	6	19	1.01	3.19
	3글자	8		1.34	
	4글자 이상	5		0.84	

인명도 역시 ‘ae-eu’ 등 4글자 이상의 모음 연쇄가 5유형이 나타나는 등(이는 표본이 확대되면 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다만 3글자 이상의 모음 연쇄가 총 음절 경계 수의 2.18%에 이르는 것은 앞서 다른 자료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5. 분석 결과의 종합적 고찰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III-30> 각 모음의 출현 빈도

행정구역 단위 포함			행정구역 단위 제외			행정구역 단위 제외(빈도순)		
모음	빈도	비율	모음	빈도	비율	모음	빈도	비율
a	12,631	16.87	a	12,205	22.58	a	12,205	22.58
eo	6,561	8.67	eo	6,561	12.14	o	9,557	17.68
o	12,733	17.00	o	9,557	17.68	eo	6,561	12.14
u	5,955	7.95	u	5,778	10.69	u	5,778	10.69
eu	1,894	2.53	eu	1,683	3.11	i	5,530	10.23
i	21,157	28.25	i	5,530	10.23	ae	2,976	5.50
ae	2,976	3.97	ae	2,976	5.50	yeo	2,652	4.91
e	273	0.36	e	273	0.50	eu	1,683	3.11
oe	454	0.61	oe	454	0.84	wa	1,513	2.80
wi	138	0.18	wi	138	0.26	yo	1,308	2.42
ya	899	1.20	ya	899	1.66	wo	1,125	2.08
yeo	3,857	5.15	yeo	2,652	4.91	ya	899	1.66
yo	1,308	1.75	yo	1,308	2.42	ye	675	1.25
yu	525	0.70	yu	525	0.97	yu	525	0.97
ye	675	0.90	ye	675	1.25	oe	454	0.84
yae	0	0.00	yae	0	0.00	e	273	0.50
wa	1,513	2.02	wa	1,513	2.80	ui	182	0.34
wae	29	0.04	wae	29	0.05	wi	138	0.26
wo	1,125	1.50	wo	1,125	2.08	wae	29	0.05
we	0	0.00	we	0	0.00	yae	0	0.00
ui	182	0.24	ui	182	0.34	we	0	0.00
합	74,885	100.0	합	54,063	100.0	합	54,063	100.0

모음 연쇄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III-31>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

모음 연쇄	빈도	비율	모음 연쇄	빈도	비율
a-a	29	1.70	ae-yeo	9	0.53
a-eo	2	0.12	ae-yo	4	0.23
a-o	14	0.82	ae-yu	12	0.70
a-u	14	0.82	ae-ye	1	0.06
a-eu	22	1.29	ae-wa	2	0.12
a-i	33	1.94	ae-wo	40	2.35
a-ae	1	0.06	ae-ui	8	0.47
a-e	2	0.12	e-a	3	0.18
a-wi	16	0.94	e-eo	1	0.06
a-ya	42	2.46	e-o	3	0.18
a-yeo	17	1.00	e-u	1	0.06
a-yo	1	0.06	e-eu	1	0.06
a-yu	6	0.35	e-i	2	0.12
a-ye	2	0.12	e-yeo	8	0.47
a-wa	6	0.35	e-yo	1	0.06
a-wo	29	1.70	e-yu	3	0.18
a-ui	4	0.23	e-wa	1	0.06
eo-a	8	0.47	e-wo	7	0.41
eo-o	7	0.41	oe-a	5	0.29
eo-u	26	1.53	oe-eo	2	0.12
eo-eu	16	0.94	oe-u	1	0.06
eo-i	5	0.29	oe-i	2	0.12
eo-oe	2	0.12	oe-ya	2	0.12
eo-ya	4	0.23	oe-yeo	3	0.18
eo-yeo	6	0.35	oe-yu	1	0.06
eo-yo	1	0.06	oe-ye	1	0.06
eo-yu	3	0.18	oe-wo	1	0.06
eo-wa	3	0.18	wi-a	3	0.18

eo-wo	25	1.47	wi-u	1	0.06
eo-ui	5	0.29	wi-eu	1	0.06
o-a	64	3.76	wi-i	1	0.06
o-eo	1	0.06	wi-ya	3	0.18
o-o	18	1.06	wi-yeo	2	0.12
o-u	7	0.41	wi-wo	1	0.06
o-eu	44	2.58	ya-eu	3	0.18
o-i	84	4.93	ya-i	1	0.06
o-ya	38	2.23	ya-wo	3	0.18
o-yeo	10	0.59	yeo-o	1	0.06
o-yo	5	0.29	yeo-u	2	0.12
o-yu	10	0.59	yeo-eu	1	0.06
o-wa	4	0.23	yeo-ya	1	0.06
o-wae	1	0.06	yeo-yeo	1	0.06
o-wo	52	3.05	yeo-wo	1	0.06
o-ui	1	0.06	yeo-ui	7	0.41
u-a	91	5.34	yo-a	9	0.53
u-eo	9	0.53	yo-u	1	0.06
u-o	1	0.06	yo-eu	2	0.12
u-u	6	0.35	yo-i	1	0.06
u-eu	23	1.35	yo-wo	7	0.41
u-i	107	6.28	yu-a	8	0.47
u-ae	1	0.06	yu-eo	2	0.12
u-oe	1	0.06	yu-u	1	0.06
u-ya	21	1.23	yu-ya	1	0.06
u-yeo	26	1.53	yu-yeo	1	0.06
u-yo	16	0.94	yu-wo	4	0.23
u-yu	20	1.17	ye-a	2	0.12
u-ye	2	0.12	ye-eo	1	0.06
u-wa	11	0.65	ye-o	1	0.06
u-wo	47	2.76	ye-eu	4	0.23
u-ui	5	0.29	ye-ya	7	0.41
i-a	34	2.00	ye-yeo	2	0.12

i-eo	2	0.12	ye-yu	1	0.06
i-o	3	0.18	ye-wo	15	0.88
i-u	2	0.12	ye-ui	1	0.06
i-eu	13	0.76	wa-a	13	0.76
i-i	8	0.47	wa-eo	1	0.06
i-ae	1	0.06	wa-o	1	0.06
i-ya	20	1.17	wa-u	12	0.70
i-yeo	17	1.00	wa-eu	8	0.47
i-yo	1	0.06	wa-i	2	0.06
i-yu	2	0.12	wa-ya	20	1.17
i-ye	1	0.06	wa-yeo	5	0.29
i-wa	2	0.12	wa-yo	1	0.06
i-wo	23	1.35	wa-yu	1	0.06
i-ui	2	0.12	wa-wo	9	0.53
ae-a	47	2.76	wa-ui	2	0.12
ae-o	4	0.23	wae-a	1	0.06
ae-u	72	4.23	wae-u	1	0.06
ae-eu	7	0.41	wae-wo	1	0.06
ae-i	19	1.12	ui-a	3	0.18
ae-oe	1	0.06	ui-i	1	0.06
ae-wi	1	0.06	ui-ya	1	0.06
ae-ya	30	1.76	ui-wa	3	0.18
합계				1,704	100.0

다시 앞의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반모음 글자 y, w가 개입한 경우를 제외한 모음 연쇄의 빈도를 종합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III-32> 모음 연쇄의 유형과 출현 빈도(y, w 개입 유형 제외)

모음 연쇄	빈도	비율	모음 연쇄	빈도	비율
a-a	29	2.92	ae-ui	8	0.80
a-eo	2	0.20	e-a	3	0.30

a-o	14	1.41	e-eo	1	0.10
a-u	14	1.41	e-o	3	0.30
a-eu	22	2.21	e-u	1	0.10
a-i	33	3.32	e-eu	1	0.10
a-ae	1	0.10	e-i	2	0.20
a-e	2	0.20	oe-a	5	0.50
a-ui	4	0.40	oe-eo	2	0.20
eo-a	8	0.80	oe-u	1	0.10
eo-o	7	0.70	oe-i	2	0.20
eo-u	26	2.62	wi-a	3	0.30
eo-eu	16	1.61	wi-u	1	0.10
eo-i	5	0.50	wi-eu	1	0.10
eo-ui	5	0.50	wi-i	1	0.10
o-a	64	6.44	ya-eu	3	0.30
o-eo	1	0.10	ya-i	1	0.10
o-o	18	1.81	yeo-o	1	0.10
o-u	7	0.70	yeo-u	2	0.20
o-eu	44	4.43	yeo-eu	1	0.10
o-i	84	8.45	yeo-ui	7	0.70
o-ui	1	0.10	yo-a	9	0.91
u-a	91	9.15	yo-u	1	0.10
u-eo	9	0.91	yo-eu	2	0.20
u-o	1	0.10	yo-i	1	0.10
u-u	6	0.60	yu-a	8	0.80
u-eu	23	2.31	yu-eo	2	0.20
u-i	107	10.76	yu-u	1	0.10
u-ae	1	0.10	ye-a	2	0.20
u-oe	1	0.10	ye-eo	1	0.10
u-ui	5	0.50	ye-o	1	0.10

i-a	34	3.42	ye-eu	4	0.40
i-eo	2	0.20	ye-ui	1	0.10
i-o	3	0.30	wa-a	13	1.31
i-u	2	0.20	wa-eo	1	0.10
i-eu	13	1.31	wa-o	1	0.10
i-i	8	0.80	wa-u	12	1.21
i-ae	1	0.10	wa-eu	8	0.80
i-ui	2	0.20	wa-i	2	0.20
ae-a	47	4.73	wa-ui	2	0.20
ae-o	4	0.40	wae-a	1	0.10
ae-u	72	7.24	wae-u	1	0.10
ae-eu	7	0.70	ui-a	3	0.30
ae-i	19	1.91	ui-i	1	0.10
ae-oe	1	0.10			
합계				994	100.0

이상과 같이 전체 자료에서 두 번째 모음이 이중모음이어서 반모음 글자가 개입된 경우를 제외한 모음 연쇄의 종류는 98가지에 이른다.<sup>15)</sup> 이는 모음 연쇄에 따른 독해의 어려움이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그 연쇄의 다양성으로만 본다면 현행 표기법의 모음 표기상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매우 낮은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전체 자료의 총 음절 경계 수는 49,942개이다. 이와 대비하여 이들 모음 연쇄 994개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1.99%로서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이는 것이다.

15) 다만 이는 yo-a, wa-u처럼 첫 음절이 이중모음인 경우를 포함한 것인데, 실제 독법의 문제는 반모음 글자(y, w)를 제외한 순수한 모음 글자들 a, i, e, o, u 사이에서 일어나므로, 반모음 글자를 제외하고 이들 다섯 모음 글자들만의 연쇄를 보면 57가지로 줄어든다.

<III-33> 모음 연쇄의 출현 비율(y, w 개입 유형 제외)

총 음절 경계 수(A)	모음 연쇄 수(B)		총 음절 경계 수 대비 비율(B/A)	
	글자 수	합		
49,942	2글자	526	994	1.99
	3글자	391		
	4글자 이상	77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어의 관광용어(1,267), 음식명(1,005), 기차역명(656), 지하철역명(593), 행정구역명(20,825), 인명(600) 총 24,946항목의 로마자 모음 표기 실태를 분석하였다.

2) 각 모음 글자의 출현 빈도는 다음과 같다. 이 결과는 a, i, e, o, u 다섯 글자 가운데 ‘e’가 유독 16위의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두 글자 조합형인 ‘eo’가 3위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표기의 부담량만 고려한다면 그리 효율적인 표기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다만 ‘e’가 /e/를 나타내는 것이 국제적으로 보편적이라는 점에서는 강점을 지닌다.

<III-34> 모음 글자의 출현 빈도

모음	빈도	비율	순위	모음	빈도	비율	순위
a	12,205	22.58	1	ya	899	1.66	12
o	9,557	17.68	2	ye	675	1.25	13
eo	6,561	12.14	3	yu	525	0.97	14
u	5,778	10.69	4	oe	454	0.84	15
i	5,530	10.23	5	e	273	0.50	16
ae	2,976	5.50	6	ui	182	0.34	17

yeo	2,652	4.91	7	wi	138	0.26	18
eu	1,683	3.11	8	wae	29	0.05	19
wa	1,513	2.80	9	yae	0	0.00	20
yo	1,308	2.42	10	we	0	0.00	20
wo	1,125	2.08	11				
합					54,063	100.0	

3) 자음 및 반모음 글자(y, w)가 개입되지 않고 5모음 글자(a, i, e, o, u)가 연쇄된 유형은 98가지로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표<III-32> 참조). 특히 행정구역 명처럼 표본이 클 경우 모음 연쇄의 유형도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여 실제 국어 표기에 나타나는 모음 연쇄의 종류는 더 다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분석 대상 자료의 음절 경계(C-C, C-V, V-C, V-V) 수는 총 49,942개이며, 그 가운데 모음 연쇄(V-V) 수는 994개로서 그 종류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출현 빈도는 총 음절 경계 수 대비 1.99%의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5) 인명의 경우 yeo의 출현 빈도(14.79%)가 다른 자료에 비하여 2~3배 높은 특징을 보인다.



## IV. 로마자 표기의 인식 실태 분석

### 1. 연구 대상

이 장에서는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은 주로 ‘지명’ 표기를 중심으로 정성적 평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명 분석 대상은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한 『2006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용례집』(이하 『용례집』)이다. 이는 책으로 발행된 이후로도 갱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받아서 사용하였다. 이 용례집은 지역별 관광 명소 이름 약 1,360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로마자 표기법과 직결된 이름들을 가려내고, 또 중복된 지명을 제외한 이름들만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그 수는 약 1,040개로 줄게 된다.<sup>16)</sup> 지명 외에도 용례집에는 약 1,050개(로마자 표기와 관련된 항목은 1,005개)의 음식 이름의 로마자 표기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 항목들도 살펴보게 된다.

또한 전국 지하철 노선도에 제시된 역명의 로마자 표기도 분석하였다. 수도권은 서울메트로(전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제작하여 한국관광공사의 감수를 받은 수도권 전철 노선도 영문판을 분석하였다. 이 노선도에는 총 382개의 역이 나와 있다. 타 지역의 경우 부산광역시만 홈페이지에 로마지 표기된 역명을 제공할 뿐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로마자 표기 지명을 제공하지 않는 역명은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후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대전광역시는 22개 역, 대구광역시는 55개 역, 광주광역시는

---

16) III장의 통계 분석에서는 1,267항목인데, 이는 중복된 지명도 별개의 항목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20개 역, 그리고 부산광역시 88개의 역으로 되어 있다. 역명들 중에서 로마자 표기법과 무관한 것들과 지명이 중복되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역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 2. 분석 방법

### 가. 자료 조사

먼저 4년제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어 원어민 4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7-10년 정도 되며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한 경험이 있으며 따라서 지명의 영문표기를 많이 접해왔다. 또한 우리말을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나 한국어 글자의 음가를 잘 알고 있어서 우리글도 비교적 정확한 발음으로 읽을 줄 안다.

이러한 조건의 원어민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의도가 로마자 표기가 얼마나 다양하게 발음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있기 때문에 한글을 알고 현행 표기법 기본 규칙을 이해하는 원어민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둘째, 최종 선정하기 전에 먼저 제공한 『용례집』을 보면서 이들과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현행 표기법에서 제시하는 기본 규칙을 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실제 지명에 근접한 발음을 기대할 수 없거나(예. Gwangalli ‘광안리’), 어떻게 발음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잘 찾아내고 또한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용례집』과 전철 노선도를 점검하면서 어떤 지명의 로마자 표기가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어민들에게 한국관광공사의 『용례집』 사본과 함께 제공한 파일은 우리말 지명과 영문 표기는 남긴 채, 일본어와 중국어 부분을 지우고 그 자리에 각자의 의견을 써넣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편집해 주었다.

<IV-1> 자문 외국인 의견 조사 양식

지역	한글명칭	영어(English)	COMMENTS & SUGGESTIONS
	흥국사	Heungguksa Temple	
경기도	경마공원	Seoul Racecourse Park	
과천시	관악산	Gwanaksan Mountain	

전철 노선도는 서울메트로가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영문과 한글 이미지 각 파일과 역명 목록을 인쇄하여 제공하였다(한글과 영문이 병기된 파일은 현재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에 만들었던 것은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 판독이 어려워서 사용할 수 없었다).

원어민들에게는 이번 연구 목적은 우리말 음가에 대한 철자법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며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향후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 유용한 정보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철자법과 관련한 지적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어차피 분석하는 짐에 본인들이 언급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예를 들어 한 원어민은 ‘정숙’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으로 ‘Be quite’보다는(『용례집』 122쪽) ‘Quite please’가 맥락상 더 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였는데, 이러한 지적도 다 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의견란(Comments & Suggestions)에서 언급할 수 없는 말, 예컨대 가능한 여러 개선방식 중 어느 방식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지에 대한 이유 같은 것은 따로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덧붙여, 개선방식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요구되며 여러 가지 방식을 섞는 것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함을 상기시켰다.

분석에 참여한 원어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어서 한글과 영문표기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문표기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입장도 고려하여 자료를 살펴보도록 부탁하였다.

본 연구의 성격을 원활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원어민 4명 중 수시로 접하는 한 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였고, 연구자는 주로 이 원어민과 대화를 나누며 이해시키고 다시 이 원어민이 나머지 원어민에게 지시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몇 차례의 모임을 가자고 그 자리에서 연구자가 설명을 다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어민들은 각자 연구자가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하였고, 사례에 관한 토의를 위한 외국인과의 모임은 총 3차례 가졌다. 1,2차 모임에서는 연구자와 원어민들이 각자가 지적한 사례를 놓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례들이 비교되었으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또한 그 의견들이 토의 과정에서 설득력이 있는 쪽으로 일정부분 자연스럽게 조율이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 3차 모임에서는 최선의 개선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각 모임 중간이나 세 차례 모임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만남도 가져 토의를 하였다.

외국인 주도자는 토의 내용을 정리하고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보내온 의견들도 수합하여 연구자에게 보내주었으며, 부정기적으로 보내오는 의견도 들어오면 보내왔다.

## 나. 자료 분석

원어민의 검토를 거친 자료는 연구자에 의하여 먼저 언어학적인 분석이 시도되었다. 영문표기 관독의 부정확성과 불편함의 언어학적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철자들의 구성방식, 음절수, 분절방식 그리고 이들 요인간의 복합적 관계 등을 조사하

었다.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음절 띄어쓰기, 붙임표(hyphen), 중간점(·), 음절 첫 글자 대문자 표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였다. 다만 최종 결정에 있어서는 일관성 원칙을 중시하여 여러 방식을 섞어서 표기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개선방식을 결정하는 데는 언어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언어 외적인 측면 예컨대, 정해진 규격의 도로표지판으로 인한 공간의 제약, 차량이동 상황에서 판독의 신속성과 용이성 등도 고려하였다.

한편 음성 통계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과 2차례 만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토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책임연구원의 연구 내용과 연구원의 통계 분석 결과가 로마자 표기법과 관련하여 의미하는 바와 문제점 해결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최종적으로 두 연구자의 분석 결과와 본 연구에 참여한 원어민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 제안하게 될 개선 방안을 결정하였다.

### 3. 분석 결과

#### 가. 1차 외국인 자문회의 (2007년 11월 7일 수요일)

외국인들과의 1차 자문회의에서는 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회의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표기를 보다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서로 나누게 하였다. 회의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마자표기에 문제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예상했듯이 모두에게서 문제가 다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둘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은 표기방식 수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소통 가능한 수준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두 가지 측면 모두 어려움이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음절수가 많은데다 각 음절의 철자 구성도 복잡하여 읽기가 어려운 사례도 많고, 여러 개의 모음 철자가 이어짐으로써 원 음가를 추측하기가 어려운 사례도 많았다.

셋째, “누구에게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부 질문이 제기되었고 또 꽤 긴 논의가 있었다. 현행 로마자표기법을 관광객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혹은 외국인 강사와 같은 단기비자 소지자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장기비자로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표기를 읽는 외국인들에게서 얼마만큼의 사전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기대할 것인가? 그들이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별할 줄 안다고 전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예컨대 우리말의 파열음 음소들은 무성음으로 규정된다. 유성 파열음은 유성음 사이에서 나오는 이음들이다. 따라서 어두위치에서 유성음 b, d, g 등으로 표기한 경우 한국인은 무성음으로 발음하는 게 일반적이며 듣는 외국인은 p, t, k 등으로 인지하게 된다.

자문 외국인들은 로마자 표기법에서 기본적인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중요한 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어원어민과 비영어원어민의 비율이 1:3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영어원어민이라는 가정은 재고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즉, 영어의 음운현상만을 기준으로 표기법을 정하는 것은 지나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넷째, “표기 판독의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라는 질문 역시 더 많은 질문을 낳았다.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면서 읽을 때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가? 혹은 지도가 잘못된 것인가? 택시를 이용할 때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해줄 때인가?

자문 외국인들은 소리를 듣고, 읽고, 발음하는 능력이 서로 다른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것은 이상, 그렇게 따지면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은 끝없이 열거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끝으로, “『용례집』을 살펴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가?”라는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았다. 표기의 판독을 어렵게 하는 언어적 요인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이 되었다.

① 음절 표기의 복잡성: 대개 길이와 관계가 많았다. Halmibawi(할미바위)나 Suribawi(수리바위)처럼 아주 단순한 자모음배열은 4개의 음절일지라도 판독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Geumjeongsanseong(금정산성), Byeongyeongsong(병영성), Saecheonnyeon(새천년)처럼 하나의 모음 음가를 표기하면서 모음자를 두 개 혹은 y를 포함하여 세 개를 쓰는 음절이 둘 이상 겹치는 경우에는 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는 전체 길이 또한 길어지기 때문에 판독을 더 어렵게 한다.

② 별개의 음절에 속하는 둘 이상 모음의 연쇄: Yeouido(여의도), Hwaam(화암), Muu(무우), Seooreung(서오릉), Seoil(서일), Jain(자인), Gail(가일), Baealdo(배알도)처럼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이 나고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여 모음끼리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로마자 표기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느꼈고,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서 알아듣기에 충분한 발음을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Daeunsan(대운산) 같은 경우는 분절에 따라 ‘다운산’으로도 읽힐 수 있다. 그 외에 가상의 지명으로 ‘자일(Jail)’은 ‘감옥’을 뜻하는 영어 단어와 같은데서 오는 좋지 않은 어감의 문제를 일으킨다.

③ 분절의 혼란(-ngV): Gwangalli(광안리-광갈리), Jeongipum(정이품-전기품), Bangudae(반구대-방우대)에서처럼 ng+모음의 조합이 들어있을 때 n과 g 사이에서 끊어 읽어야 할지 g 뒤에서 끊어야 할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위의 예 같은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을 수 있다고 한다.

④ 일대일 음표기 규칙에 따른 문제: ‘oe’(Jungoe 중외), ‘eo’(Yeouido 여의도), ‘u’(Namdaemun 남대문)는 영어의 철자법과 음운 규칙과 심하게 어긋나서 문제를 일으킨다. ‘oe’가 ‘외’로 발음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eo’는 대개 두 개의

모음으로 발음되고 또한 다른 모음이 앞이나 뒤에 오게 되면 분절이 혼란스러워진다.

물론 Mangisanseong(망이산성), Gochangupseong(고창읍성)처럼 문제 ①과 문제 ③이, Jungoe(중외)나 Hoenggye(횡계)처럼 문제 ③과 문제 ④가 겹치는 경우도 있고, Boeungang(보은강)처럼 문제 ①-④ 네 가지가 다 겹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도 있다.

위 ①~④의 지적 사항 중 모음 표기를 위주로 하는 이 연구의 방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①, ②, ④이다. 이 점에서 ③은 모음 표기와 무관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②에서 보듯이 모음 표기 문제의 핵심이 분절에 있으므로 동일한 선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③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 외국인들의 지적 사항 외에 Gaphasan(갑하산), Beopheungsa(법흥사)에서처럼 p와 h가 나란히 오는 경우 f로 발음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우리말에서 p와 f가 사실상 같은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상호 소통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연구자는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각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다 다르다시피 했다.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 하였다.

가능한 해결 방안으로서 붙임표(hyphen) 사용, 음절 첫 글자 대문자 사용, 음절 띄어쓰기,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편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토의가 있었다. 각각의 방법들이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자문 외국인들과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다양한 표기를 인쇄하여 돌려 보며 얘기를 나누었다. 논의의 진행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표기 사례로서 다음 세 지명을 이용해 보았다. 문제 ④에 해당하는 사례는 음성 구조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단일 모음 표기의 문제이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1) Seongheungsanseong ‘성흥산성’ (음절구조의 복잡성)



- 2) Hwaam ‘화암’ (별개의 음절에 속하는 두 모음의 연속)
- 3) Gwangalli ‘광안리’ (분절의 혼란)

첫째, 로마자 표기의 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먼저 현행 표기법의 공식적인 선택이면서 동시에 제한된 사용을 요구하는 붙임표에 대해 얘기해보았다.

일단 음절마다 붙임표를 사용해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붙임표를 사용함으로써 위 세 가지 어려움은 해소되겠지만 붙임표의 수만큼 공간이 늘어나야 한다. 따라서 전체 길이는 그만큼 더 길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로표지판은 정해진 규격으로 제작되고, 하나의 표지판에 하나의 지명만 넣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지명을 넣을 때도 혼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지명을 두 줄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아래에서 표를 제시할 때는 가시적 효과를 보기 위하여 글자의 크기를 최대한 확대하여 제시한다.

#### <IV-2> 음절별 붙임표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교

---

**Seong-heung-san-seong**  
**Seongheungsanseong**

---

실제 표지판에 준하는 실물 혹은 이미지를 만들어 살펴보지는 못하였으나 위 표 <IV-2>를 보면, 음절마다 붙임표를 넣은 표기와 붙임표 없는 표기를 비교해보았을 때, 붙임표를 넣은 경우는 음절이 각각 분리되어 가독성은 확실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길이가 세 글자 정도 늘어나게 되었고, 따라서 정해진 규격의 표지판에 한 줄로 표기를 하려면 글자의 크기도 줄어들 수밖에 없

을 것이다.

만약 표 <IV-3>처럼 두 줄로 표기하게 되면 가독성도 떨어지게 되고 보기에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이 혼란은 표지판의 화살표 등 다른 표식과 같이 배열되면  
더 가중될 것으로 짐작된다.

<IV-3> 음절별 붙임표 사용 및 두 줄 표기 용례

음절마다 붙임표 사용	하나의 지명이 두 줄로 표기될 때
<b>성홍산성</b> <b>Seong-heung-san-seong</b> <b>Seongheungsanseong</b> (비교)	<b>성홍산성</b> <b>Seong-heung-</b> <b>san-seong</b>

둘째, 음절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 표기 방식은 과거에 있었던 주장이기도 하다(예. 2000년 7월 5일자 임영숙 논설위원의 ‘외언내언’ 새 로마자 표기법). 논의에 이용하는 세 개의 지명에 이 방식을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IV-4> 각 음절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했을 때

성홍산성	화암	광안리
<b>SeongHeungSanSeong</b>	<b>HwaAm</b>	<b>GwangAlli</b>

이 표기 방법 역시 판독의 어려움을 약간은 해소해 준다. 하지만 붙임표의 가독성보다는 떨어지는 면이 있으며, 대문자와 문자의 구별이 그다지 신속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각 음절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면서 동시에 음절 사이를 띄우는 방법을 써보았다.

<IV-5> 각 음절 첫 글자 대문자 + 띄어쓰기

성흥산성	화암	광안리
<b>Seong Heung San Seong</b>	<b>Hwa Am</b>	<b>Gwang Al Li</b>

이 방법은 붙여 쓰기만 한 것에 비해서 분절의 수월성이 좋아져 가독성은 훨씬 높아졌다. 하지만 표 <IV-2>에서처럼 각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넣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길이가 크게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만약 두 줄로 표기하게 된다면 더욱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성흥산성(Seong Heung San Seong)’처럼 표기할 경우 한 단어인지 여러 단어인지 혼돈스럽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다만 ‘화암(Hwa Am)’ 같이 음절수가 적은 경우에는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어 보였다.

끝으로, 띄어쓰기를 하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소문자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었다.

<IV-6> 첫 음절 첫 글자만 대문자 + 띄어쓰기

성흥산성	화암	광안리
<b>Seong</b> heung san seong	<b>Hwa</b> am	<b>Gwang</b> al li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모든 음절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띄어쓰기를 한 경우와 비교할 때 분절의 수월성에 따른 가독성은 별 차이가 없었고, 다만 소문자를

사용함으로써 길이는 덜 길어질 수 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다. 혼란스러움에도 변함이 없었다. 또한 자문 외국인들에게는 여전히 지명이 하나인지 둘 이상인지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이상의 사례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 나는 대화에서 나온 자문 외국인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캐나다의 Saskatchewan주(州)에는 Regina, Saskatoon이라는 두 시(市)가 있는데, 이런 지명들이 많은 타 지역 사람들에게 발음하기 어렵지만 어느 누구도 좀 더 수월한 발음이나 인식을 위해 붙임표나 띄어쓰기를 하자는 제안은 없었다고 한다. 예외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므로 완벽한 규칙은 있을 수 없다. 발음에 있어서도 표기가 실제 발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표기를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기타로, 로마자 표기 문제 이외에 번역상의 문제도 상당수 지적되었다. 부정확한 번역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Recreational Forest(휴양림)는 Forest 혹은 Forest Park로, Temple Site(사지(寺地))는 Temple Ruins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또한 명칭이 지닌 의미를 모두 나타내려 하다 보니 명칭이라기보다는 ‘뜻풀이’에 가까운 것들도 다수 지적되었다. 예를 들면 ‘창성사진각국사 대각원조탑비’를 Stone Monument of State Preceptor Jingak in Changseongsa Temple로, ‘죽산리5층석탑’는 Five-story Stone Pagoda of Juksan-ri로 번역하였는데, 각각 Changseong-sa Temple Monument to Jingak, Juksan-ri Pagoda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외국인들에게는 명칭 속에서 탑이 석조인지, 목조인지 그리고 몇 층짜리인지 등을 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직접 현장에서 보면 알 수 있고 안내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음식명의 로마자 표기에서는 ‘상어지느러미찜’(sangeojineureomijjim)처럼 너무 길어서 어려운 경우뿐만 아니라 관례에 어긋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붙임표 사용(예. ‘버섯스파게티’ beoseot-spaghetti; 새우토마토소스 saeu-tomato-sauce)이 많이 지적되었다.

1차 모임에서는 이상의 논의가 오고갔으며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책을 도출하지

는 못하였으며, 2차 모임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용례집』에 있는 지명 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표시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표기가 있으면 제안란에 기록하여 연구자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그 파일들을 수합하여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한데 모아서 음성음운적인 분석을 먼저 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용례집』에 수록된 음식이름들의 로마자 표기도 검토하고, 그 외에 로마자 표기와 영문번역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예. Sambong Recreational Forest ‘삼봉자연휴양림’) 영문번역 부분 그리고 안내문 영문번역에서도 문제가 발견되면 표시하도록 하였다. 로마자 표기와 영문번역이 섞여있는 경우도 지적하게 한 이유는 첫째, 제한된 크기의 표지판 때문에 글자 크기가 작아지게 하여 식별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둘째, 영문번역을 적합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뜻도 명확해지고 단어 수가 줄어들어 간결해지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나. 2차 외국인 자문회의 (2007년 11월 21일 수요일)

자문 외국인들의 2차 모임에서는 의외로 쉽게 해결책이 도출되었다. 1차 모임에서는 거의 모두가 다른 의견을 표출하였으나, 그 이후 2차 모임 전까지 각자 해결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생각들이 우연히도 서로 거의 일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자문 외국인들이 충분히 논의를 할 때까지 연구자는 그들의 의견에 “된다”, “안 된다”, 혹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필요한 질문만 던지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자문 외국인들의 합의된 생각은 이름 뒤에 나오는 ‘분류 개념(class)’을 나타내는 표시어 앞에 붙임표를 넣자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아래처럼 표기하는 것이다.

4) Hallasan → Halla-san ‘한라산’

- 5) Nakdonggang → Nakdong-gang ‘낙동강’
- 6) Geumjeongsanseong → Geumjeong-sanseong  
      혹은 Geumjeongsan-seong ‘금정산성’
- 7) Bulkuksa → Bulkuk-sa ‘불국사’
- 8) Changgyeonggung → Changgyeong-gung ‘창경궁’
- 9) Geoncheonmun → Geoncheon-mun ‘건천문’
- 10) Jejudo → Jeju-do ‘제주도’
- 11) Daehangno → Daehang-no ‘대학로’

그렇게 하면 문제 ①(음절 구성의 복잡성)의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고, 문제 ②(모음 충돌)의 상당수가 해결되며, 문제 ③(ng 분절의 불명확성)의 사례 중 많은 것이 해소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이 방식은 또한 Seoraksan Mountain(설악산), Jeju Island(제주도) 등에서처럼 이미 san(山), do(島)를 표시하고서도 다시 Mountain, Island를 덧붙여 ‘오히려 외국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음운규칙이 아닌 어휘규칙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붙임표 뒤에 오는 말은 분류 개념이라서 누구에게나 쉽게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그래서 ‘성홍산성’을 예로 모든 음절을 붙여 썼을 때, 모든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넣었을 때, 분류 개념 앞에만 붙임표를 넣었을 때를 비교해 보았다.

#### <IV-7> 세 가지 표기 방식 비교

Seongheungsanseong  
Seong-heung-san-seong  
Seongheung-sanseong

비교해 본 결과 자문 외국인들 모두 분류 개념을 붙임표로 연결하여 표기한 것이 가장 가독성이 좋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이 해결 방식은 음식 이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은 ‘요리 방식’을 가리키는 말 앞에 붙임표를 넣는 것이다.

- 12) Galbijjim → Galbi-jjim ‘갈비찜’
- 13) Gamulchiho → Gamulchi-hoe ‘가물치회’
- 14) Pajeon → Pa-jeon ‘과전’
- 15) Galbitang → Galbi-tang ‘갈비탕’
- 16) Doenjangjjigae → Doenjang-jjigae ‘된장찌개’
- 17) Maeuntang → Maeun-tang ‘매운탕’
- 18) Haejangguk → Haejang-guk ‘해장국’

끝으로, 모음 표기 ‘oe’, ‘eo’, ‘u’와 관련한 음역 규칙(transliteration rule)만 정비된다면 나머지 문제는 사소할 것이며 어쩌면 완전히 무시해도 좋을 정도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 자문 외국인들의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그들의 접근법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영어식 발음법을 고집하지 않았다. 영어 원어민들조차도 다양한 발음을 구사하고 소리에 대한 인지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중 비영어권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어식 음성음운 규칙에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자문 외국인들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개선하고자 구상한 방안이다.

둘째, 안내표지판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만은 표기법보다는 표지판의 설치와 더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자신들의 오랜 우리나라 체류에서 온 경험을 통한 판단이었다. 있어야 할 표지판이 없거나, 있긴 하지만 부적절한 위치

에 있어서 눈에 쉽게 띄지 않거나, 방향 판단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는 표지방식 등이 오히려 더 불만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30% 안팎을 차지하는 외국인들의 안내표지판에 대한 불만 중 로마자 표기법과 직접 연관된 불만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셋째, 로마자 표기에 있어서 ‘세밀한 친절’을 요구하지 않았다. 예컨대 위의 예(4-11)에서처럼 분류 개념에 대해 뜻까지 같이 제공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Jumunjin-hang(주문진항)으로 충분하며 거기에 Harbor를 덧붙이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약간 염려되는 바가 없지 않았으나 자문 외국인들은 인터넷, 안내책자, 동반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지명을 영문으로 바꿀 때 지나치게 세밀하게 번역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 예컨대 ‘5층 석탑’은 Pagoda로 충분하며 그것이 몇 층인지 석재인지 목재인지 등은 영어 명칭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과잉친절이 오히려 혼란을 부른다는 지적이었다.

## 다. 자료 분석 결과

### (1) 음절 철자 분석

우리말에서 하나의 음절을 로마자로 표기하면 무려 36가지의 음절 구조가 가능하다. 그 목록은 아래의 표 <IV-8>과 같다. 음절 철자 구조 유형분류에서는 로마자 철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반모음(w, y)은 G(Glide)로 나타냈다. 그랬을 때 6개 유형 각각에 6가지 조합의 음절 철자가 가능하여 총 36가지가 나온다. 그리고 한 음절의 글자 수가 최대 7개까지 나온다.

#### <IV-9> 단음절 철자 구조 유형 분류



모음	반모음	단자음	겹자음	단자음+반모음	겹자음+반모음
V(아a)	GV(와wa)	CV(가ga)	CCV(차cha)	CGV(과gwa)	CCGV(파kkwa)
VC(안an)	GVC(완wan)	CVC(간gan)	CCVC(찬chan)	CGVC(관gwan)	CCGVC(땀ttwim)
VCC(앙ang)	GVCC(양yang)	CVCC(강gang)	CCVCC(창chang)	CGVCC(광gwang)	CCGVCC(굉kkwong)
VV(어eo)	GVV(여yeo)	CVV(거geo)	CCVV(쳐cheo)	CGVV(겨gyeo)	CCGVV(꽤ttwae)
VVC(언eon)	GVVC(연yeon)	CVVC(건geon)	CCVVC(첸cheon)	CGVVC(견gyeon)	CCGVVC(견kkyeon)
VVCC(앵aeng)	GVVCC(영yeong)	CVVCC(성seong)	CCVVCC(청cheong)	CGVVCC(경gyeong)	CCGVVCC(굉kkwaeng)

이 유형 중에 겹자음+반모음의 음절을 가진 말은 흔하지는 않으나 그 쓰임을 ‘파리’, ‘파리’(CCGV), ‘땀’(CCGVC), ‘굉’(CCGVCC), ‘꽤기’, ‘(발)꽤기’(CCGVV), ‘태견’(CCGVVC), ‘굉파리’(CCGVVCC) 등에서 볼 수 있다.

위 음절들 중 4글자 이상으로 된 음절이 23개이며, 단모음을 두 개의 모음 철자(二重母音 綴字)로 나타내는 경우가 18가지이다.<sup>17)</sup> 이 중에서도 외국인들에게 특히 낯선 철자 구성이라 할 수 있는 4글자 이상이면서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14개이다. 여기에 하나의 모음 철자를 포함하지만 겹자음 ‘kk’, ‘tt’, ‘pp’, ‘jj’, ‘ss’가 사용되는 음절 3가지(CCGV, CCGVC, CCGVCC)를 합하면 17가지의 음절이 외국인들의 음가 판별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로마자 표기법 상 단일 음절의 표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더 큰 어려움은 이런 복잡한 구조의 음절이 2개 이상 겹칠 때 발생한다. 그래서 『용례집』에 제시된 사례들 중 로마자 표기법과 전혀 혹은 사실상 무관한 것들과 인명을 제외한 약 1040개의 지명(반드시 地名은 아닐 수 있으나 편의상 지명이라 부름)을 분석해 보았다.

『용례집』의 지명 중 약 60%(587개)에 달하는 지명의 로마자 표기에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인 ‘eo’(어), ‘oe’(외), ‘ui’(의), ‘eu’(으), ‘ae’(애)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서 비교적 외국인이 발음에 혼란을 덜 겪는 ‘ae’(약 80개)를

17) 여기서 단모음은 로마자 철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말에서 단모음으로 취급되는 ‘꺄’에 해당하는 로마자 표기 wi는 음절 유형에서 단모음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모음+단모음으로 처리되었다.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50%가 넘는 지명이 외국인들로서는 정확한 음가를 짐작하기 어려운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약 13%(136개)는 하나의 지명 표기에 둘 이상의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예. Geumjeongsan ‘금정산’, Seongheungsanseong ‘성흥산성’).

결국 지명 표기에서 전체 길이가 길어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여기에 로마자 표기법의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들은 영어의 발음법 측면에서 보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은 Halmibawi ‘할미바위’처럼 네 개의 음절로 된 지명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구조를 가질 때는 읽기가 어렵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분명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를 대신할 수 있는 단일 모음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Ⅱ.1. 참조) 무엇보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같이 검토되어야 할 일이므로 오랜 시간 신중한 연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철자를 손대지 않고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가독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명들을 위주로 그 지명들의 표기가 지니는 특성들을 하나하나씩 살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첫 번째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가 들어간 음절이 60% 안팎이고, 그런 음절이 하나의 지명에 둘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단위로 분리가 가능한 지명의 경우 시각적으로 분리시키면 한결 가독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이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용례집』에서 의미 분리가 가능한 686개 지명(66%) 중 앞의 의미단위가 1음절이고 뒤의 의미단위가 2음절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 <Ⅳ-10> 1음절-2음절로 분리되는 지명

1	갯바위	Gatbawi Rock
2	태화강 선바위	Seonbawi of Taehwagang River
3	문바위계곡	Munbawi Valley
4	정이품송	Jeongipum Pine Tree
5	숫용추	Sutyongchu Basin
6	암용추	Amyongchu Basin
7	용바위	Yongbawi Rock
8	돌할매	Dolhalmae Rock
9	용머리 해안	Yongmeori Cliffs

1음절+2음절로 분리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총 9개의 지명이 나왔다. 이 지명들은 모두 앞 의미단위와 뒤 의미단위를 분리하여 독립된 단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독성도 훨씬 좋아지고, 호기심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각 단어들의 의미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할 수도 있고 또 더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된다. ‘정이품송(Jeongipum Pine Tree)’의 경우에는 Jeong Ipum Pine Tree로 표기할 수도 있으나 Jeong 2(i) Pum Pine Tree 혹은 Jeong 2(i) Pum Song (Pine Tree)로 표기하면 이름의 의미를 보다 잘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어느 것으로 하든 ‘전기품송’으로 발음될 소지도 해소된다.

의미단위를 분리하여 표기하면 표 <IV-11>과 같다.

<IV-11> 1음절+2음절로 분리되는 지명(표기 수정)

	한글 이름	분리 전 영어 이름	분리 후 영어 이름
1	갯바위	Gatbawi Rock	Gat Bawi Rock
2	태화강 선바위	Seonbawi of Taehwagang River	Seon Bawi of Taehwagang River
3	문바위계곡	Munbawi Valley	Mun Bawi Valley
4	정이품송	Jeongipum Pine Tree	Jeong 2 Pum Song (Pine Tree)
5	숫용추	Sutyongchu Basin	Sut Yongchu Basin

6	암용추	Amyongchu Basin	Am Yongchu Basin
7	용바위	Yongbawi Rock	Yong Bawi Rock
8	돌할매	Dolhalmae Rock	Dol Halmae Rock
9	용머리 해안	Yongmeori Cliffs	Yong Meori Cliffs

다음으로, 4음절로 표기된 지명들을 뽑아서 의미상 분류 개념어와 표상 개념어로 분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참고로 5음절 이상으로 된 표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4음절 지명으로는 총 91개(약 9%)가 나왔는데, 대부분은 의미 분리가 가능하였으며, 의미 분리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명으로는 다음 두 개가 있었다. 『용례집』에는 올라있지 않지만 강원도의 ‘아우라지’(Auraji)도 있다.

#### <IV-12> 의미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4음절 지명

두물머리	Dumulmeori Confluence
산굼부리	Sangumburi Crater

위 두 지명은 어원을 따져보면 의미단위 분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또 흔하지도 않기 때문에 의미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였다. 예컨대 ‘두물머리’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양수리(兩水里)의 순우리말인데 남한강과 북한강의 물이 만나 한강이 되는 곳 즉, 두 물(兩水)이 만나는 곳(里)이다. ‘머리’는 동네 입구를 뜻하는 ‘들머리’의 ‘머리’와 같은 것으로 추측된다. ‘산굼부리’는 산(山)-굼(구멍)-부리(뽕죽한 것)로 구성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4음절 지명은 매우 드물고 다행히 음절 철자 구조도 비교적 단순하여 외국인들이 읽기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의미 분리가 불가능한 4음절의 지명들은 있는 그대로 표기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의미단위가 2음절+2음절로 분리되는 지명들을 살펴보았다. 총 77개의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분류 개념은 아래 표 <IV-13>과 같이 24개가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는 이미 의미 단위를 분리하여 띄어 쓴 경우가 여럿 되지만 문제는 일관성이 없는 사례도 있어서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 보였다. 예컨대 ‘울산바위(Ulsanbawi)’는 붙여 쓰고 있으나 ‘까막바위(Kkamak Bawi)’는 띄어 썼다. 또, 다른 지명의 ‘산성’은 다 붙여서 표기하였으나 ‘진례산성’은 Jillye Sanseong으로 띄어쓰기를 하였다.

<IV-13> 2음절+2음절로 분리되는 지명

1	도동서원	Dodong Seowon Confucian School
2	금산향교	Geumsan Hyanggyo Confucian School
3	경상감영공원	Gyeongsang Gamyeong Park
4	안성맞춤박물관	Anseong Machum Museum
5	무릉반석	Mureung Banseok Rock
6	십이선녀탕	Sibi Seonnyeo Bath
7	맹씨행단	Maengssi Haengdan House
8	비자나무 숲	Bija Namu Forest
9	세방낙조	Sebang Nakjo
10	운림산방	Ullim Sanbang House
11	민예학당	Minye Hakdang Academy
12	명량대첩공원	Myeongnyang Daecheop Park
13	주상절리대	Jusang Jeolli Cliff
14	금정산성	Geumjeongsanseong Fortress
15	남목마성	Nammokmaseong Fortress
16	고창읍성	Gochangseupseong Fortress
17	태화강 십리대밭	Simnidaebat of Taehwagang River
18	와우정사	Wawujeongsa Temple

19	울산바위	Ulsanbawi Rock
20	난향로원	Nanhyangnowon Park
21	용하구곡	Yonghwagugok Valley
22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Sinji Myeongsasimni Beach
23	산방굴사	Sanbanggalsa Cave Temple
24	동천석실	Dongcheonseoksil Pavilion

이미 2음절+2음절로 분리하여 표기된 지명들로는 비교적 빈도가 높은 ‘서원’(14개)과 ‘향교’(7개), 그리고 기타 빈도가 낮은 3-13번에 해당하는 지명이 의미단위로 분리 표기되어 있었다. 이들은 붙여 쓰게 되면 모두 가독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의미단위를 분리하지 않고 표기한 14-24번의 지명들을 보면, ‘울산바위(Ulsanbawi)’를 제외한 나머지 지명들은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산성’과 ‘바위’는 빈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앞선 표 <IV-11>의 지명들과 <IV-13>의 지명들처럼 의미단위로 분리되는 것은 각각 독립된 단어로 표기하면 가독성도 높아지고 우리말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표 <IV-13>의 지명 중 그동안 붙여 썼던 것들을 분리하여 표기하면 아래 표 <IV-14>와 같다. 여기서는 로마자 표기와 관련된 부분만 수정하였다. 이 수정된 표기법은 잘못된 분절에 따른 발음의 오류도 막아줄 수 있는데, 가령 Gochang Eupseong으로 띄어 씀으로써 ‘고창읍성’이 ‘고찬급성’으로 발음될 소지가 없어지게 된다.

<IV-14> 2음절+2음절로 분리되는 지명(표기 수정)

	한글 이름	분리 전 영어 이름	분리 후 영어 이름
1	금정산성	Geumjeongsanseong Fortress	Geumjeong Sanseong
2	남목마성	Nammokmaseong Fortress	Nammok Maseong

3	고창읍성	Gochang Eupseong Fortress	Gochang Eupseong
4	태화강 십리대밭	Simnidaebat of Taehwagang River	Simni Daebat
5	와우정사	Wawujeongsa Temple	Wawu Jeongsa
6	울산바위	Ulsanbawi Rock	Ulsan Bawi
7	난향로원	Nanhyangnowon Park	Nanhyang Nowon
8	용하구곡	Yonghwagugok Valley	Yonghwa Gugok
9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Sinji Myeongsasimni Beach	Myeongsa Simni
10	산방굴사	Sanbanggulsa Cave Temple	Sanbang Gulsa
11	동천석실	Dongcheonseoksil Pavilion	Dongcheon Seoksil

한편 이렇게 띄어 쓰는 방법을 앞서 외국인과의 2차 토의에서 개진하였던 안으로서 Geumjeong-sanseong처럼 표기하는 방식과 비교해볼 수 있다. 그 결과 한 칸 띄우면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붙임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독성이 한결 나왔다. 또한 아래에서 보듯이 차지하는 공간에는 서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자문 외국인들에게 보여준 결과 모두 붙임표를 사용한 것보다는 띄어 쓴 것을 더 선호하였다.

<그림 IV-1> 띄어쓰기와 붙임표 사용 비교



『용례집』에는 없으나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의 용례에는 ‘한강대교 (Hangangdaegyo(Br))’가 있는데 이 경우도 Hangang Daegyo로 표기하면 가독성이

높아질 것이다.

기타 2음절+2음절로 분리되는 지명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로 ‘청송야송 미술관(Cheongsongyasong Art Gallery)’와 ‘장유대청 계곡(Jangyudaecheong Valley)’ 같은 지명 표기가 있는데, 전자는 ‘청송군에 있는 야송박물관’이므로 Cheongsong Yasong으로, 후자는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위치한 계곡으로서 ‘장유계곡’이라고도 부르는 곳이므로 Jangyu(Jang-yu) Daecheong으로 띄어서 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할 터인데 붙여서 표기하여 가독성을 떨어뜨렸다. 우리말 명칭을 붙여 쓰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도 붙여서 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두 의미단위를 띄어서 표기하도록 표기법 규정에서 예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4음절로 표기된 지명 중 3음절-1음절로 의미 분리가 가능한 지명들을 살펴보았다. 총 11개의 지명이 발견되었는데, 의미단위 분리가 가능한 지명들(686개) 중 1.8%로 그다지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 지명들을 모두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IV-15> 3음절+1음절로 의미 분리가 되는 지명

1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Apgujeong-dong Rodeo Street
2	가로수길	Garosugil Road
3	대나무골테마공원	Daenamugol Theme Park
4	거북산당	Geobuksandang Shrine
5	도드람산 삼봉	Dodeuramsan Triple Peaks
6	가리왕산	Gariwangsan Mountain
7	동치악산	Dongchiaksan Mountain
8	민주지산자연휴양림	Minjujisan Recreational Forest
9	도피안사	Dopiansa Temple
10	소쿠리섬	Sokuriseom Island
11	주문진항	Jumunjinhang Harbor



이중 ‘압구정동(Apgujeong-dong)’은 이미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dong을 붙임표로 분리하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로수길’과 ‘대나무골’의 ‘길(gil)’과 ‘골(gol)’은 붙임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5항은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길(gil)’과 ‘골(gol)’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리(里)’, ‘동(洞)’, ‘가(街)’를 포함하고 있는 이상 ‘골’과 ‘길’을 포함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듯하다. 또 현재 전국의 모든 길에 이름을 붙이고 있으니 그 수가 많고, ‘골’로 명명된 마을도 아직 많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5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로마자 표기법에서 ‘로(路)’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다. 먼저 서울의 많은 길 이름이 ‘종로 2가(Jongno 2(i)-ga)’처럼 ‘로’와 ‘가’가 겹친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식의 이름이 소수 있다(예. 광주광역시의 ‘금남로 2가’). 둘째, 규정에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로’ 앞에 붙임표를 넣기로 하면 ‘종로’는 Jong-ro로 표기하게 되고 반면에, ‘종로 2가’의 ‘종로’를 붙임표 없이 표기하게 되면 음운 변화가 일어난 소리를 반영하는 제3장 제1항에 의해 Jongno 2(i)-ga로 표기되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Jong-ro와 Jongno가 혼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로’는 붙여 쓰기로 하고 ‘가’ 앞에는 붙임표를 넣기로 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하지만 이것은 ‘로’와 ‘가’가 겹치는 경우를 지나치게 의식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국의 길 이름의 수와 비교할 때 ‘로’와 ‘가’가 겹치는 길 이름의 수는 극히 미미하다. 그렇게 본다면 두 가지 해결 방안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서울의 ‘로’와 ‘가’가 겹치는 지명만 예외로 취급하여 현행 표기법처럼 하고 나머지는 ‘로’ 앞에 붙임표를 넣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어차피 번호가 붙은 ‘ga’는 띄어 쓰고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로’ 앞에 붙임표를 넣게

하는 방법이다. 다만 ‘2(i)-ga’ 같은 경우 붙임표는 시각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별 의미가 없으므로 ‘Jong-ro 2(i) ga’ 혹은 ‘Jong-ro 2(i) Ga’로 표기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종합적으로 논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할 것이다.

이상 세 지명을 제외한 표 <IV-15>의 4-10번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분류 개념 앞 단어의 음절수가 야기하는 가독성의 문제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분류 개념인 ‘산’, ‘사’, ‘강’ 등을 포함하는 다른 모든 지명들의 문제와 얽혀 있으므로 포괄하여 논의함이 옳을 듯하다. 그리고 분류 개념이 2음절인 경우는 이미 위에서 다루었으므로 이하에서는 분류 개념이 한 음절인 모든 예를 대상으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우선 『용례집』의 지명들에서 1음절로 된 분류 개념을 가리키는 말들을 분리시켜 보았다. 그리고 분류 개념들을 각각 ‘지리’, ‘자연’, ‘건축’이라는 세 개의 큰 개념에 맞추어 나누어 보았다. 이 개념 분류에 따른 하위개념을 가리키는 말들은 아래 표와 같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편 ‘자연’과 ‘건축’ 어느 것에 속하는지 모호한 경우도 있다. 가령 호수 중에도 인공호수가 있고 자연적인 호수가 있을 수 있다. 또 ‘포(浦)’ 중에도 사실상 인공으로 조성된 항구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아 ‘건축’에 속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성격상 어느 쪽 개념에 속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에 대한 논란은 무시하기로 한다. 또한 아래의 하위개념들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지만 포괄적 논의 속에서 이해될 것이므로 이 역시 무시한다.

아래 표 <IV-16>에서는 분류 개념어들 중에서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5항에 이미 제시된 행정 구역 단위인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 및 ‘가’는 지리 개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중 지리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로(길)’, ‘골’, ‘촌’만을 제시하였다.

<IV-16> 분류 개념과 영문 예시

분류 개념	하위개념	영문 지명 예시
지리	로(路)	Daehangno Street(대학로), Garosugil(가로수길)
	골	Eoreumgol(어름골), Darakgol(다락골)
	촌(村)	Seonbichon(선비촌), Yedamchon(예담촌)
자연	산	Geumjeongsan Mountain(금정산)
	강	Jeokbyeokgang River(적벽강)
	천(川)	Cheonggyecheon(청계천)
	영(嶺), 재	Old Namtaeryeong Road(남태령 옛길), Seolmaejae(설매재)
	지(池)	Uirimji(의림지), Hoamji(호암지)
	도(島), 섬	Baengnyeongdo Island(백령도), Namiseom(남이섬)
	암(岩)	Daewangam(대왕암),
	봉(峰)	Daecheongbong(대청봉), Baegunbong(백운봉)
	대(臺)	Bangudae(반구대), Taejongdae(태종대)
	굴	Daegeumgul(대금굴), Hwanseongul(환선굴)
	곶(串)	Ganjeolgot(간절곶)
	연(淵)	dutayeon(두타연), Eorayeon(어라연)
	소(沼)	Geomnyongso(검룡소), Gumunso(구문소)
	탕(湯)	Seonnyeotang(선녀탕)
	만(灣)	Goheungman(고흥만), Suncheonman(순천만)
	포(浦)	Cheongnyeongpo Cape(청령포)
건축	성(城)	Byeongyeongseong Fortress(병영성)
	궁(宮)	Geoncheonggung Palace(건천궁)
	문(門)	Seodaemun(서대문), Geonchunmun Gate(건춘문)
	사(寺)	Seongheungsa Temple(성흥사)
	암(庵)	Wolmyeongam Temple(월명암)
	능(陵)	Seosamneung Tomb(서삼릉)
	재(齋)	Momyeongjae Shrine(모명재)

원(園)	Soswaewon(소쇄원), Jungnogwon(죽록원)
당(堂)	Hwanbyeokdang(환벽당), Mireukdang(미륵당)
헌(軒)	Gwanpungheon(관풍헌), Haewolheon(해월헌)
장(莊)	Seongyojang House(선교장)
묘(墓)	Jungyeongmyo Tomb(준경묘)
정(亭)	Hapgangjeong(합강정), Hangmijeong(항미정)
대(臺)	Cheongnamdae(청남대)
루(樓)	Yeongnamnu(영남루), Hambyeongnu(함벽루)
비(碑)	Pyochungbi(표충비)
진(鎭)	Chojijin(초지진)
사(祠)	Chungmusa(충무사), Chungnyeolsa(충렬사)
전(殿)	Imhaejeon(임해전)
각(閣)	Joyanggak(조양각)
항(港)	Gungpyeonghang Harbor(궁평항)
호(湖)	Seolbongho(설봉호)

『용례집』에서는 ‘탑(塔)’을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고 번역인 Pagoda로 나타내고 있다. 예외적으로 ‘충훈탑(Chunghontap)’이 있는데, 이는 같은 이름으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또 그 의미로 봐서도 로마자로 표기하기보다는 번역하여 War Memorial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자문 외국인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위 목록에서는 제외하였다.

‘교(橋)’ 또한 『용례집』에서는 모두 Bridge로 번역되어 있다. 하지만 도로표지판에서는 ‘상주교(Sangjugyo(Br))’, ‘금강교(Geumganggyo(Br))’처럼 로마자로 표기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 목록에는 포함시켰다.

『용례집』에서는 2음절+1음절로 구성된 지명은 분류 개념어가 1음절인 것들 중에서 91%를 넘는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음절+1음절로 된 지명은 비록 6%가 약간 넘는 정도로 40개가 채 되지 않지만 실생활에서는 이보다 더 많

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로마자 표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서와 달리 이 하위개념을 가리키는 말들을 앞의 말(표상 개념어)과 분리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표기법이 가독성을 고려하고자 한다면 분리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용례집』에 근거하면, 분류 개념어를 합쳐 3음절 이상의 이름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8%가 넘는데다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말에는 ‘eu’, ‘eo’, ‘oe’, ‘ui’ 등 영어의 철자-음성 측면에서 보편성이 떨어지고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인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가 매우 높은 빈도로 쓰이고 있고 하나의 이름에 둘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도 빈번하며, 역시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인 글자가 4개가 넘어가는 음절의 빈도가 아주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리시키고 어느 정도까지 분리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어지는데, 그 해결책으로서 우선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보았다.

① 모든 지명의 1음절 분류 개념어 앞에 붙임표를 넣게 한다.

② 모든 지명의 1음절 분류 개념어 앞에 붙임표를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허용한다.

③ 1음절 분류 개념어 중 일부는 앞에 붙임표를 넣게 하고 나머지는 현재처럼 붙여 쓰게 한다.

방안 ①을 택하면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단순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류 개념어를 분리시킴으로써 가독성을 높인다. 동시에 분류 개념어들은 빈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우리말을 알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예컨대 san ‘산’(Halla-san), gang ‘강’(Nakdong-gang), mun ‘문’(Geoncheon-mun), sa ‘사’(Seongheung-sa) 등은 자주 눈에 띄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비교적 쉽게 이런 말들을 익힐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법’의 측면에서 그리하며 현실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전국에 있는 표지판의 약 66%를 수정 혹은 교체해야 한다. 물론 이 외에도 홍보책자 등 바뀌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비용을 들여야 한다. 그럴 바에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가독성뿐만 아니라 모든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기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된다.

방안 ②를 택하게 되면 예외 허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 예컨대 분류 개념어 앞의 표상 개념어가 1음절인 경우 즉, 1음절+1음절로 된 지명들을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적벽강’은 Jeokbyeok-gang으로 표기하고 ‘동강’은 Donggang으로 표기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방안 ①에 비해서 표지판 수정 및 교체 비율은 조금 떨어진다. 그러나 불과 4% 정도이다. 이 정도로는 비용 절감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방안 ③을 택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내표지판 등의 수정 및 교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1음절 분류 개념어 중 일부를 앞에 붙임표를 넣게 한다 했을 때 그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역시 어느 선까지 붙임표를 넣게 하느냐를 정해야 한다.

우선 1음절+1음절로 된 지명들은 현행 표기법에서처럼 특별한 경우(예. 발음의 혼란)가 아니면 붙여 쓰게 할 수 있다. 둘째,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가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고,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가 분류 개념어를 포함해서 둘을 넘어가게 되면 가독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가 분류 개념어를 포함해서 두 개를 넘어가는 지명에서는 붙임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결국 방안 ③을 규정으로서 다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방안 ③-1>

지명에서 1음절의 분류 개념어를 포함하여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 ‘eu’, ‘eo’, ‘ui’, ‘ae’가 들어가는 음절이 두 개를 넘어갈 때에는 분류 개념어 앞에 붙임표를

넣는다.

위의 표 <IV-15>에서 예시한 지명들 중에서 이 규정에 해당하여 붙임표를 넣는 지명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9) Eoreum-gol(어름골), Geumjeong-san(금정산), Jeokbyeok-gang(적벽강), Cheonggye-cheon(청계천), Namtae-ryeong(남태령), Baengnyeong-do(백령도), Daechong-bong(대청봉), Taejong-dae(태종대), Daegum-gul(대금굴), Seolmae-jae(설매재), Seonnyeo-tang(선녀탕), Cheongnyeong-po(청령포), Byeongyeong-seong(병영성), Geoncheong-gung(건천궁), Seosam-neung(서삼릉), Seongheung-sa(성흥사), Momyeong-jae(모명재), Haewol-heon(해월헌), Cheongnam-dae(청남대), Imhae-jeon(임해전)

이렇게 하면 수정 혹은 교체해야 할 표지판의 수는 크게 줄어든다. 『용례집』에 의하면 약 13%로 줄게 된다.

물론 규정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가령 ‘경희궁(Gyeonghui-gung)’, ‘건청궁(Geoncheong-gung)’의 ‘궁(gung)’은 붙임표로 분리하고 반면에 ‘경복궁(Gyeongbokgung)’, ‘덕수궁(Deoksugung)’의 ‘궁’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쓰게 된다. 또 ‘서대문(Seodae-mun)’의 ‘문(mun)’은 띄어 쓰면서 ‘동대문(Dongdaemun)’, ‘남대문(Namdaemun)’의 ‘문’은 붙여 쓰게 된다. 하지만 ‘궁’과 ‘문’의 경우는 사실상 서울에만 몰려있다고 하며 그 수가 많지 않다. 특히 ‘궁’들은 근거리에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의 ‘궁’과 ‘문’처럼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밀집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앞에 모두 붙임표를 넣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 관련 기관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의 수만을 가독성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가 두 개가 들어있는

Seodaemun(서대문)과 한 개만 들어있는 Heungnyemun(흥례문)을 비교해 보면 후자가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Changgyeonggung(창경궁)도 모음글자 조합형 표기가 하나밖에 없지만 가독성은 많이 떨어진다. Beomeosa(범어사)나 Taejongdae(태종대) 같은 경우도 모음글자 조합형 표기가 들이지만 가독성이 염려스러울 정도는 아니다.

실제로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음절의 음소구성 패턴(phonotactics)과 길어도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말에서는 한 음절이 최대 7개의 알파벳으로 표기될 수도 있으며, 적어도 5개의 알파벳 정도는 매우 흔한 편이다. Seodaeseon(서대선)의 모음글자 조합형의 세 음절은 3개 혹은 4개 알파벳의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에,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가 하나인 Heungnyemun에서는 첫 음절이 모음글자 조합형 표기 포함 5개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nye도 영어에서는 매우 낮은 음소구성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가독성이 떨어진다. Changgyeonggung은 첫 두 음절의 알파벳이 무려 11글자나 된다.

그렇다면 모음글자 조합형 표기의 수보다는 분류 개념어 포함 가장 긴 두 음절의 글자 수가 9자 이상일 때에는 분류 개념어 앞에 붙임표를 넣는 것을 원칙으로 정할 수 있다. 9자로 정한 것은 다소 임의적이지만 『용례집』의 지명들을 관찰한 결과 8자까지는 가독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명이 그리 많지 않으나 9자 지명들은 대부분 가독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자 이하인 지명이라도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붙임표를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방안 ③에 해당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 기술될 수 있다.

#### <방안 ③-2>

총 3음절 이상의 지명에서 어말 1음절의 분류 개념어를 포함하여 가장 긴 두 음절의 총 글자 수가 9자 이상일 때에는 분류 개념어 앞에 붙임표를 넣는다. 다만 8자 이하일지라도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붙임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앞서 언급한 Heungnyemun처럼 복합적인 이유로 가독성이 좋지 않은 명칭이 원칙에 따라서는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다만 규정’에 의해 불임표를 넣을 수도 있다(Heungnye-mun). 하지만 위 조항보다 더 세밀하고 엄격하게 분석하여 복잡한 기준을 정하게 된다면 관련 기관의 로마자 표기 담당자들은 표기법에 숙련되지 않은 이상 지명들의 정확한 로마자 표기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함으로써 만일의 실수를 범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만 규정’은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아래 ‘발음의 혼란’ 참조).

## (2) 발음의 혼란

어디에서 분절을 하느냐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혼란의 문제는 현행 표기법 제3장 제2항에서 아래처럼 불임표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규정을 수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불임표(-)를 쓸 수 있다.

(보기)

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

해운대 Hae-undae

그러나 『용례집』에서 이 조항에 따라 표기를 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 그 이유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마련한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기준안」의 ‘관광용어 영문표기 기준’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로마자 표기법에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불임표(-)를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일률적으로 음절 경계에 붙임표를 넣지 않았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필요한 경우,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즉,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은 그러하지만 용례집에서는 따르지 않았기로 하겠다는 말이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필요한 경우, 붙임표를 쓸 수 있다고”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붙임표를 사용한 경우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마 거의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용례집』에서 모음 분절에 따른 발음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지명은 80개 안팎으로 전체 지명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발음상 혼란의 원인으로는 다음 4가지로 나타난다.

①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함으로써 모음 철자가 연속되어 분절 위치에 따라 다른 발음이 될 때.

(보기) Haeundae → Hae-undae(해운대), Ha-eundae(하운대)

Oeosa → O-eosa(오어사), Oe-osa(외오사)

②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지명 중에서 연속된 모음 철자의 구성이 영어의 발음 원칙상 매우 다른 발음을 유도할 수 있을 때.

(보기) Seoreung(서오릉), Seoil(서일), Daeamsan(대암산)

Jeamsan(제암산), Hoamji(호암지), Geojoam(거조암)

③ 음절 끝의 ng에 다음 음절의 모음이 이어지면서 분절 위치가 불명확해질 때(분절 표시를 하지 않으면 n-g로 분절하여 발음되는 경향이 더 강한 편이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

(보기) Gwangalli(광안리 → 광갈리), Daewangam(대왕암 → 대왕감)

Jungoe(중외 → 중괴), Bangudae(반구대 → 방우대)

④ 음절 끝의 n 혹은 m에 모음이 이어지면서 분절 위치가 불명확해질 때(이 때는 원음이 달라도 n 앞에서 끊든 뒤에서 끊든 실제 발음은 대개 같다).

(보기) Donam(도남), Donam(돈암), Nagan(낙안), Beomeosa(범어사)

위 보기들 중 Oeosa(오어사)는 ①(분절의 혼란)과 ②(발음의 혼란) 두 가지가 겹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Jungoe는 oe가 음절 끝에 오므로써 실제로는 ‘외’라는 발음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외국인들은 Jungoe를 ‘중고’에 가깝게 발음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서 발음상 혼란의 우려가 있으면 붙임표를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 조항을 어느 정도까지 실제로 적용할 것인가를 공사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적용을 전혀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실 위의 발음의 혼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붙임표 사용 범위를 정하기란 쉽지 않다. 위 ①-④에 해당하면 무조건 붙임표를 사용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현장 기관의 표기 관련 담당자가 각 지명들이 위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며 특히 어떤 지명이 ③에 해당하는지를 알기란 더더욱 어렵다.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현실적인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국관광공사처럼 붙임표를 쓰지 않고 모두 붙여 쓰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자문 외국인들도 자신들의 나라를 포함하여 어느 나라든 발음의 혼란이 있는 지명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사실이 그렇기도 하다. 위 혼란 중 분절과 관계없이 실제 소리가 같은 ④번을 무시하면 ①-③에 해당되는 지명은 8%에서 5%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만약 차후에 분류 개념어는 붙임표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게 되면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 혼란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방법은 매우 혼란스러운 지명에 한해서만 붙임표를 사용하도록 그 기

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가령 가장 큰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이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 중 ‘eo’, ‘oe’, ‘eu’, ‘ui’, ‘ae’이므로, 이들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가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만 붙임표를 쓰도록 하면 비교적 쉽게 이해되고 아주 심한 발음상의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후에 분류 개념어는 붙임표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게 되면 혼란을 야기하는 지명의 수는 위의 첫 번째 방법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수정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표지판의 수정 및 교체를 최소화하는 임시방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도로표지판만 수정 혹은 교체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① 분류 개념어가 2음절 이상으로 독립된 단어가 될 수 있을 때는 그 개념어를 붙임표 없이 띄어 쓴다.

(보기) 고창읍성 Gochang-eupseong → Gochang Eupseong  
한강대교 Hangang-daegyo → Hangang Daegyo

② 분류 개념어를 포함하여 가장 긴 두 음절의 글자 수가 9개를 넘을 때는 그 개념어 앞에 붙임표를 넣는다.

(보기) 병영성 Byeongyeongseong → Byeongyeong-seong  
창경궁 Changgyeonggung → Changgyeong-gung

③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 ‘eo’, ‘oe’, ‘eu’, ‘ui’, ‘ae’의 앞 혹은 뒤에 또 모음이 나와 발음에 혼란을 줄 때는 실제 지명에 맞추어 적절하게 붙임표를 사용하여 분절한다.

(보기) 서오릉 Seoreung → Seo-oreung  
오어사 Oeosa → O-eosa

④ 기타 가독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판단될 때.

이 방법을 실행할 경우 한동안 표기의 일관성을 잃게 된다는 점은 쉽게 예상된다. 예컨대 홍보책자나 안내지도에서는 띄어쓰기와 붙임표 사용이 안 되어 있고 도로표지판에는 띄어쓰기와 붙임표가 사용되어 있는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불일치가 외국인들에게 주는 혼란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Gochangseupseong과 Gochang Eupseong을, Byeongyeongseong과 Byeongyeong-seong을, Seoreung과 Seo-oreung을 서로 다른 지역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자문 외국인들의 판단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 중에는 잠시 혼란을 겪는 수가 있으나 한두 번만 겪고 나면 괜찮아 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홍보책자나 안내지도 등 다른 곳의 표기도 결국에는 수정해야 하는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예산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뜻에서 제안하는 것이다.

### (3) 지하철 노선의 역명 분석

지하철 노선에 나오는 지명은 전체적으로 혼란이 적은 편이다. 무엇보다도 행정 지역 이름을 주로 사용하고 가능한 경우 지명을 축약함으로써(‘한대’, ‘외대’ 등) 2음절어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하나는 지하철 역 이름은 자동차를 타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표지판을 읽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 주로 휴대하고 다니는 노선도를 보거나 전철 안에서 안내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안내도 혹은 전자 안내판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영문 지명이 좀 어려워도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먼저 서울메트로(전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제작하여 한국관광공사의 감수를 받은 수도권 전철 노선도를 살펴보았다. 노선도는 총 436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54개 역이 겹치므로 실제 역 수는 382개이다. 또한 이 중에서 ‘부평(Bupyeong)’과 ‘부평시장(Bupyeong Market)’처럼 로마자로 표기된 부분이 같은 역, 대부분의 대학교 이름처럼 표기법을 따르지 않은 역, 그리고 로마자 표기 없

이 영어로 번역된 역(Children's Grand Park ‘어린이 대공원’) 등 49개 역을 제외하면 분석 대상은 333개이다.

위에서 제안한 음절 분리 기준인 ‘2음절 이상 분류 개념어 유무’, ‘가장 긴 두 음절이 9개 글자 이상’,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와 다른 모음의 결합’을 바탕으로 역명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기준에 따라 수정을 요하는 역명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갈림길을 가리키는 말을 지명에 붙여 쓴 경우이고, 또 하나는 의미가 뚜렷한 분류 개념어가 2음절인 경우이다. 전자의 유형을 먼저 제시하면 표 <IV-17>과 같다.

<IV-17> 지명+갈림길 역명

	한글 역명	현 로마자 표기	수정 로마자 표기
1	간석오거리	Ganseogogeor	Ganseok Ogeori
2	광명사거리	Gwangmyeongsageori	Gwangmyeong Sageori
3	단대오거리	Dandaeogeor	Dandae Ogeori
4	미아삼거리	Miasangeori	Mia Samgeori
5	부평삼거리	Bupyeongsangeori	Bupyeong Samgeori
6	신대방삼거리	Sindaebangsangeori	Sindaebang Samgeori
7	신정네거리	Sinjeongnegeori	Sinjeong Negeori

지명에 갈림길이 붙은 역명은 음절수가 5-6개나 되어 가독성이 크게 떨어진다. Dandaeogeor(단대오거리)에서는 모음 철자가 aeo로 이어져 분별하여 읽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명과 갈림길을 분리하여 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편 이 중에서 1번 ‘간석오거리’의 ‘간석’의 로마자 표기는 띄어쓰기로 인해 Ganseog에서 Ganseok으로 끝 글자가 바뀐다.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역명도 뒤의 두 글자가 독립된 단어로 쓰이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띄어 쓰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III-18> 2음절 분류 개념어 역명

	한글 역명	현 로마자 표기	수정 로마자 표기
1	남한산성입구	Namhansanseong	Namhan Sanseong
2	몽촌토성	Mongchontoseong	Mongchon Toseong
3	동두천중앙	Dongducheonjungang	Dongducheon Jungang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위와 유사한 경우이면서 띄어 쓴 역명으로 ‘신길온천’(Singil oncheon)이 있다. 다만 뒤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지 않고 소문자로 표기하였다.

수도권 지하철 역명 중 가장 긴 두 음절의 글자 수가 9자를 넘어가는 역명은 다음 두 역이 있는데, 뒤의 분류 개념어 앞에 붙임표를 넣어 표기하면 가독성이 한결 높아질 것이다.

<IV-19> 2음절 9글자 초과 역명

	한글 역명	현 로마자 표기	수정 로마자 표기
1	경복궁	Gyeongbokgung	Gyeongbok-gung
2	광흥창	Gwangheungchang	Gwangheung-chang

모음글자 조합형 표기에 또 모음이 붙은 역명에는 아래 표 <IV-20>에 제시된 것들이 있다. 이 중 ‘여의나루’는 ‘여의’+‘나루’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naru를 따로 떼어 Naru로 표기할 수도 있다. 만약 그냥 붙여 쓴다면 Yeo-uinaru로 할 수도 있다. 한편 ‘숙대입구’ 역과 ‘외대앞’ 역은 Sookmyung Women’s Univ.와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로 대학명만 영문으로 제시하였는데, 유독 ‘한대앞’만 Handaeap으로 표기하였다. 게다가 표기에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 ae와 모음 a가 겹쳐 읽기도 어렵게 되었다. 그냥 다른 경우처럼 대학명을 영문으로 제시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굳이 로마자로 표기 한다면 ‘앞’을 따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

<IV-20> 모음글자 조합형 표기+(이중)모음 역명

	한글 역명	현 로마자 표기	수정 로마자 표기
1	애오개	Aeogae	Ae-ogae
2	여의나루	Yeouinaru	Yeo-uinaru 혹은 Yeo-ui Naru
3	여의도	Yeouido	Yeo-uido
4	한대앞	Handaeap	Handae Ap

전체 역명 중 4음절이면서 의미 분리가 용의하지 않은 역명으로는 ‘장승배기(Jangseungbaegi)’와 ‘상왕십리(Sangwangsimni)’가 있다. 전자의 경우 ‘배기’는 분리가 가능하나 독립된 단어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독성을 높이자면 붙임표를 넣어 Jangseung-baegi로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는 의미상 Sang-wangsimni로 분리가 가능할 것이다. ‘상왕십리’에 상대되는 지명으로 ‘하왕십리’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 외 지역 지하철의 경우 부산만 홈페이지에서 로마자 표기가 제공될 뿐 광주, 대전, 대구는 로마자로 표기된 역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세 지역 지하철역의 경우에는 한글명을 로마자로 직접 표기하여 살펴보았다.

대전광역시의 지하철 역명 22개 중에는 ‘서대전사거리(Seodaejeonsageori)’가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져 문제가 된다. 비교적 단순한 음절 구조이긴 하지만 ‘서대전(Seodaejeon)’만으로도 이미 모음글자 조합형 표기가 3개나 되는데 다시 모음글자 조합형 표기가 포함된 ‘사거리(sageori)’를 붙여서 쓴다면 가독성은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Seodaejeon Sageori로 표기해야 될 듯하다. 이 외의 역명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구광역시 지하철의 두 개 노선 55개 역명 중에는 ‘해안(Hae-an → Hae-an)’ 하나가 연속된 모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광역시의 20개



지하철역 중에는 문제가 될 만한 역명이 눈에 띄지 않았고, 부산광역시의 지하철 88개 역 중에는 이미 지명과 관련해서 위에서 지적된 ‘해운대(Haeundae → Hae-undae)’ 이 외에는 문제가 될 만한 로마자 역명 표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음식 이름 로마자 표기 분석

『용례집』에 제시된 음식 이름은 1,048개에 달한다. 표기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모두 이탤릭체로 표기된다는 점이다. 둘째, 붙임표의 사용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 두 가지 모두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판단되었으며, 자문 외국인들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이탤릭체 사용은 현행 로마자 표기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문 외국인들이 이탤릭체가 음식 이름을 읽는 데 혼란을 가중시키며 보편적인 이탤릭체 사용법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탤릭체를 쓰지 않기를 강하게 권한다는 점만 알리고 넘어가기로 한다.

『용례집』에서의 붙임표 사용은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용례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말 음식 이름을 붙여서 한 단어로 쓰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도 붙임표로 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붙임표가 대단히 많다. 자문 외국인들도 대부분의 로마자 음식 이름 표기가 읽기에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아래와 같이 로마자 표기(실제로는 로마자 표기가 아님)와 영어 명칭이 같은데도 붙임표를 사용한 것은 매우 희극적이라 했다.

<IV-21> 로마자-영어 동일 음식명

	음식메뉴명	로마자표기	영어
1	치킨버거	<i>chicken-burger</i>	chicken burger

2	치킨버거 세트	<i>chicken-burger set</i>	chicken burger set
3	치킨스테이크	<i>chicken-steak</i>	chicken steak
4	치킨스튜	<i>chicken-stew</i>	chicken stew
5	치킨피자	<i>chicken-pizza</i>	chicken pizza
6	카페라테	<i>caffe-latte</i>	caffe latte
7	카푸치노	<i>cappuccino</i>	cappuccino
8	콤비네이션샐러드	<i>combination-salad</i>	combination salad
9	콤비네이션피자	<i>combination-pizza</i>	combination pizza

표 <IV-21>의 예와 같은 경우에는 ‘로마자 표기’를 제시할 이유가 없다. 그냥 영어를 제시하면 된다. 굳이 제시한다면 진짜 로마자 표기(예, 치킨버거 *Chikinbeogeo*)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때는 붙임표도 필요가 없고 ‘샐러드’와 ‘피자’ 같은 단어는 띄어 쓰면 될 것이다. 그리고 ‘버거’ 종류는 띄어 쓴 chicken burger와 붙여 쓴 chickenburger 둘 다 가능하나 전자의 표기가 더 흔한 듯하다. 따라서 hamburger와 cheeseburger 외에는 띄어 쓰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음식 이름의 로마자 표기는 의미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좋을 듯하다. 현 『용례집』의 표기에서 붙임표를 넣은 곳은 예외 없이 띄어쓰기하면 되는 자리다. 다만 접속사인 ‘과’나 ‘와’가 들어간 음식명을 표기하면서 -gwa, -wa까지 표기하였는데(새송이버섯과 안심스테이크 *saesongi-beoseot-gwa ansim-steak*; 새송이와 등심스테이크 *saesongi-wa deungsimsim-teak*),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 접속사 로마자 표기 대신 ‘&’ 표시를 사용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새송이 . 느타리 버섯(*saesongi . neutari beoseot*)’에서처럼 관례에 없는 마침표도 ‘&’로 대신하면 될 것이다. 쉼표를 사용한 ‘율란, 강란(*yullan, gangnan*)’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래는 『용례집』의 음식명 표기를 수정 예시한 것이다. 유형을 바탕으로 참고될 만한 것만 제시하였다. 수정된 표기에서는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IV-22> 음식명 수정 표기 예시

음식명	수정 전 표기	수정 후 표기
관자살돌판구이	<i>gwanjasal-dolpan-gui</i>	gwanjasal dolpan gui
가마솔날치알 비빔밥	<i>gamasot-nalchial-bibimbap</i>	gamasot nalchial bibimbap
가마솔인삼영양 비빔밥	<i>gamasot-insam-yeongyang-bibimbap</i>	gamasot insam yeongyang bibimbap
곰칼국수	<i>gom-kalguksu</i>	gom kalguksu
닭고기와 마늘소스	<i>dakgogi-wa maneul-sauce</i>	dakgogi & maneul sauce
맑은장국	<i>malgeun-jangguk</i>	malgeun jangguk
버섯스파게티	<i>beoseot-spaghetti</i>	beoseot spaghetti
북경오리	<i>Bukgyeong-ori</i>	Bukgyeong ori
불고기버거 세트	<i>bulgogi-burger set</i>	bulgogi burger set
브로콜리치즈 수프	<i>broccoli-cheese-soup</i>	broccoli cheese soup
새송이버섯과 안심스테이크	<i>saesongi-beoseot-gwa ansim-steak</i>	saesongi beoseot & ansim steak
새송이 . 느타리 버섯	<i>saesongi . neutari beoseot</i>	saesongi & neutari beoseot
소고기버섯샤부 샤부	<i>sogogi-beoseot-shabu-shabu</i>	sogogi beoseot shabushabu
소시지구이와 머스타드소스	<i>sausage-gui-wa mustard -sauce</i>	sausage gui & mustard sauce
수삼생불고기	<i>susam-saengbulgogi</i>	susam saeng bulgogi
쌀강정	<i>ssal-gangjeong</i>	ssal gangjeong
왕냉면	<i>wangnaengmyeon</i>	wang naengmyeon
울란, 강란	<i>yullan, gangnan</i>	yullan & gangnan

치즈토마토소스 스파게티	<i>cheese-tomato-sauce-spaghetti</i>	cheese tomato sauce spaghetti
티본스테이크와 양송이소스	<i>T-bone-steak-wa yangsongi-sauce</i>	T-bone steak & yangsongi sauce
평양물냉면	<i>Pyeongyang-mul-naengmyeon</i>	Pyeongyang mul naengmyeon
훈제연어쌈 정식	<i>hunjeyeoneossam jeongsik</i>	hunje yeoneo ssam jeongsik
훈제연어와 철갑상어알	<i>hunje-yeoneo-wa cheolgabsangeoal*</i>	hunje yeoneo & cheolgap sangeo al

\* *cheolgabsangeoal*의 *cheolgab*은 표기가 잘못 되었다. *cheolgap*이어야 한다.

한편 요리방식 등을 가리키는 개념어들 중 1음절로 된 것들은 모두 붙여 쓰고 있는데,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의미 면에서나 가독성 면에서나 더 바람직하게 보이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IV-23> 띄어 쓸 것을 권장하는 말

개념	수정 전	수정 후
국(guk)	갈치호박국 <i>galchi-hobakguk</i>	galchi hobak guk
밥(bap)	대나무통밥 <i>daenamutongbap</i>	daenamu tong bap
빵(ppang)	마늘빵 <i>manulppang</i>	maneul ppang
상	명절상 <i>myeongjeolsang</i>	myeongjeol sang
쌈(ssam)	월남쌈 <i>Wollnamssam</i>	Wollnam ssam
적(jeok)	누름적 <i>nureumjeok</i>	nureum jeok
전(jeon)	단호박전 <i>danhobakjeon</i>	danhobak jeon
죽(juk)	버섯죽 <i>beoseotjuk</i> , 닭죽 <i>dakjuk</i>	beoseot yuk, dak yuk
찜(jjim)	상어지느러미찜 <i>sangeojineureomijjim</i>	sangeo jineureomi jjim
차(cha)	계피차 <i>gyepicha</i>	gyepi cha
탕(tang)	누룽지탕 <i>nurungjitang</i>	nurungji tang
회(hoe)	가물치회 <i>gamulchihoe</i>	gamulchi hoe

위 띄어쓰기의 적용은 개념어 앞의 말이 재료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비빔밥(bibimbap)’의 ‘비빔’은 재료가 아니라 방식을 가리키므로 띄어 쓰지 않는다. ‘산적(sanjeok)’은 의미가 다르므로 san jeok으로 띄어 쓰지 않는다. ‘녹차(nokcha)’의 ‘녹’은 재료가 아니므로 역시 nok cha로 띄어 쓰지 않는다. ‘곰탕(gomtang)’, ‘매운탕(maeuntang)’, ‘설렁탕(seolleongtang)’처럼 ‘탕’ 앞의 말이 재료보다는 방식을 가리키므로 붙여 쓰는 것으로 한다. ‘육회(yukhoe)’, ‘숙회(sukhoe)’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로 띄어 쓰지 않는다.

용례 중에는 일부 띄어서 쓰기가 애매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으나 띄어 쓴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전체 빈도에 있어서 소수이기 때문에 붙여 씀으로써 발생하는 혼란보다는 띄어 씀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이 훨씬 더 적을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2000년 7월 현행 국어 로마자 표기법으로 개정됨으로써 변화된 특징 중 하나는 이전에 비록 특수문자이지만 하나의 글자로 표기되던 것들이 개정된 표기법에서는 두 글자로 표기되는 음가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예컨대 ‘어’와 ‘으’는 예전에는 매킨-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라 ö와 ũ로 표기되었었지만 현행 표기법에서는 ‘eo’와 ‘eu’로 표기된다. 이로 인해 가령 ‘금성산성’은 머쾰-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르면 Kŭmsöngsansöng으로 표기되는 반면 현 표기법에서는 Geumseongsanseong으로 표기된다. 전자는 외자 모음 철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가만 알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국제적으로 낯선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를 사용함으로써 전자에 비해서 읽기가 훨씬 어렵다. 음가를 몰라 철자발음을 하게 되면 원음과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전자는 ‘굼송산송’처럼 발음될 것인데, 흔히 영어의 u(/u/)와 o(/ɔ/)의 발음이 실제로는 ‘으’와 ‘어’에 가깝다는 점을 생각하면 ‘금성산성’과 매우 흡사하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후자는 ‘게움세웅산세웅’으로 발음되어 원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다. 설사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의 음가를 안다고 하더라도 가독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표기법에 따른 지명 등의 표기들 중에 가독성이 떨어져 외국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모음 표기의 사례가 자주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현행 표기법에서 제시하는 우리말 음가의 로마자 표기 방식은 수정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였다(II.1 참조). 나아가 현행 규정의 수정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것은 수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Yeouido와 같이 지나치게 많은 모음 글자가 나열되는 모음 연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러 표기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표기법을 오랜 기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선불리 새로운 표기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또 모음 연쇄에서 음절 경계 인식의 문제는 III장의 광범위한 빈도 분석, IV장의 부분적 빈도 분석을 통하여 나온 결과로서 모음-모음의 연쇄가 전체 음절 경계의 2% 정도의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도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현행 표기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보완책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언어학적인 분석과 자문 외국인들과의 상호토의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자는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언어학적인 이유를 밝히기 위함이고, 후자는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가독성이 약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실제 외국인들에게 타당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자문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단순히 감수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에도 의견을 개진하게 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한 『2006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용례집』에 제시된 약 1,360개의 지명과 약 1,050개의 음식명의 로마자 표기를 주재료로 하였으며, 전국 지하철 노선의 567개 역명의 로마자 표기도 살펴보았다. 나아가 모음 표기의 통계적 고찰을 위하여 기차역명, 행정구역명, 인명 등을 포함하여 총 24,946 항목의 자료를 고찰하였다.

조사 결과 로마자 표기의 가독성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요인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로마자 음절 구성의 복잡성이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 하에서는 하나의 모음 음가에 대한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eo, oe, eu, ui, ae)의 빈도가 높고(지명의 50% 이상), 이중자음과 자음+반모음(w, y)의 빈도도

높으며(약 70%), 그로 인해 지명 표기의 길이가 매우 길어지는 사례가 많다. 가령 불과 3음절인 ‘병영성’의 로마자 표기인 Byeongyeongseong은 글자 수만 무려 16자이다. 게다가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들은 대개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모음 음가 표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낯설게 보인다.

둘째 요인은 분절의 난해성이 야기하는 어려움이다. 그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서로 다른 음절에 속하는 모음끼리의 연쇄로 인해 어디에서 분절하여 읽어야 할지 추측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여의도’의 로마자 표기인 Yeouido에서는 모음 철자가 연속적으로 4개가 이어진다. 따라서 외국인으로서 원음에 가까운 음가를 추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Oeosa는 분절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오어사’가 될 수도 있고 ‘외오사’가 될 수도 있다. 자음의 경우에는 특히 ng의 분절과 관련된 사례가 많다. 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 n과 g 사이에서 끊느냐 아니면 ng 뒤에서 끊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Gwangalli는 분절에 따라 ‘광안리’가 되기도 하고 ‘광갈리’가 되기도 하는데, 외국인들은 후자로 발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데는 로마자 표기법 자체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기관에서의 표기법 적용에 따른 문제도 있다. 가령 표기법 제3장 제2항 같은 경우에는 단정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붙임표를 쓸 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럴 때 관련 기관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전문성이 부족해서 적용했다가 실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 점은 실제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사례가 없지 않고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측면이기도 하다.

가독성과 관련하여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는 첫째, 붙임표 사용을 너무 한정시켜 놓았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새로운 표기법 적용으로 인해 그리고 우리말의 특성으로 인해 표기가 매우 길어지거나 3개 이상 연속된 모음 철자가 사용되는 사례의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붙임표의 사용을



좀 더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표기법의 적용에 있어 우리말 띄어쓰기에 너무 집착한 느낌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 지명에 띄어쓰기가 없으면 로마자 표기에서도 모두 붙여 쓰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표기의 길이가 심하게 길어지거나 분절의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광명사거리(Gwangmyeongsageori)’는 하나의 지명이긴 하지만 표기에서는 띄어쓰기(Gwangmyeong Sageori)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자 표기에서까지 붙여 씀으로써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나아가 ‘남한산성(Namhansanseong)’ 같은 경우에도 ‘남한’과 ‘산성’으로 띄어 읽는 점을 고려하면 표기에서 띄어쓰기(Namhan Sanseong)를 함으로써 훨씬 큰 가독성을 얻을 수 있다.

셋째, 표기법을 적용해야 하는 관련 기관은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물론 그런 점을 고려해서 현재처럼 최대한 간소화했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실제 적용 사례들을 유형별로 최대한 많이 제공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기관에서 알아서 해석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한국관광공사의 『용례집』을 보서는 전문가의 감수를 충분히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 제언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와 3음절어가 유난히 많은 우리말의 특성상 현행 표기법의 규정대로 하면 표기가 너무 길어지거나 분절 위치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지고 발음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붙임표의 사용 범위를 분류 개념어 앞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독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분절의 혼란도 많이 피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우리말 지명에서는 붙여 쓰더라도 분류 개념어가 2음절일 때는 로마자 표

기에서 띄어 쓸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길이가 너무 길어져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셋째, 음식명의 로마자 표기에서는 특히 국제적 관행이 무시되고 있다. 먼저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한다.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용법이 아닐뿐더러 가독성을 크게 해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말에서 음식명이라 하여 단어들을 모두 붙여 쓰면 로마자 표기에서도 예외 없이 단어 사이에 붙임표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붙임표 사용 역시 국제적 관례에 어긋난다. 『용례집』에서 붙임표를 넣은 자리는 모두 띄어쓰기를 하면 되는 자리다.

넷째, 위 세 가지 제안을 표기법에 반영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이용자들을 위해서 붙임표를 사용하거나 띄어 쓸 수 있는 조건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유형별 사례를 최대한 제시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표기법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례를 많이 제공해도 전문가가 없는 일반 기관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문을 구하거나 감수를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 혹은 전문가들을 지정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 제안을 곧바로 적용할 경우 안내표지판 및 안내책자의 교체 혹은 수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아주 많이 들 것이다. 예컨대 위에서 제안한대로 표기법을 수정하여 적용할 경우 전국 안내표지판의 70% 이상을 교체 혹은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방안도 강구해 보았다. 그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안내표지판을 교체 또는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분류 개념어가 2음절 이상으로 독립된 단어가 될 수 있을 때는 그 개념어를 붙임표 없이 띄어 쓴다.

(보기) 고창읍성 Gochang-eupseong → Gochang Eupseong

한강대교 Hangang-daegyo → Hangang Daegyo

② 분류 개념어를 포함하여 가장 긴 두 음절의 글자 수가 9개를 넘을 때는 그 개념어 앞에 붙임표를 넣는다.

(보기) 병영성 Byeongyeongseong → Byeongyeong-seong

창경궁 Changgyeonggung → Changgyeong-gung

③ 모음글자 조합형 철자 ‘eo’, ‘oe’, ‘eu’, ‘ui’, ‘ae’의 앞 혹은 뒤에 또 모음이 나와 발음에 혼란을 줄 때는 실제 지명에 맞추어 적절하게 붙임표를 사용하여 분절한다.

(보기) 서오릉 Seoreung → Seo-oreung

오어사 Oeosa → O-eosa

위 기준을 적용하면 안내표지판의 교체 및 수정은 전체 표지판의 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각 기관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서 분류 개념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례를 구체적으로 많이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표 <Ⅳ-16>~<Ⅲ-20> 참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이 있다. 비록 한시적이지만 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표기법 적용은 일관성을 잃게 되고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또 그 혼란이 매우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말을 잘 아는 우리가 느끼는 혼란에 비하면 외국인 방문객들이 표지판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혼란은 아주 미미할 것이라 판단된다. 실제로 접하게 될 혼란, 예컨대 안내책자에 나오는 표기와 도로표지판에 나오는 표기가 달라서(Hangangdaegyo → Hangang Daegyo) 느끼게 되는 혼란의 확률은 매우 낮다는 말이다. 나아가 위 기준을 적용하여 해소시키게 될 혼란에 비하면 표기가 달라서 야기되는 혼란이 훨씬 적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타 제언으로서, 로마자 표기법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실행의 측면에서 보면 관련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용례집』을 보면 오타와 로마자 표기상의 오류는 그

리 많지 않으나, 각 지명에 대한 영문표기와 영어 안내판 문구에는 크고 작은 오류가 대단히 많다. 자문 외국인들의 지적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드러나는데, 하나는 오역(예. ‘휴양림’ Recreational Forest → Forest 혹은 Forest Park; Temple Site → Temple Ruins; Hours of Operation/ Hours → Opening hours; Be Quiet → Silence 혹은 Quiet Please)이고, 또 하나는 ‘똥풀이’식 번역(‘연주암 삼층석탑’ Three-story Stone Pagoda of Yeonjuam Temple → Yeonjuam Temple Pagoda; ‘창성사진각국사 대각원조탑비’ Stone Monument of State Preceptor Jingak in Changseongsa Temple → Changseongsa Temple Monument to Jingak)이다. 기타, 지명의 영어 번역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도 몇 있었으며, 일반 표기와 도로표지판 표기를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실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항리공룡화석지’를 도로표지판에 표기할 때는 약자를 써서 Uhangni Dino Fossil Site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 표기는 Uhangni Dinosaur Fossil Site라고 해야 한다.

지명이나 안내문 등을 외국어로 번역할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하고 외국인 감수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그저 감수만 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은 그야말로 문법만 확인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국제적 감각이 있고 잘 교육받은 복수의 외국인이 좀 더 깊이 관여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함께 실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번역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적으로 잘 통용되고 이해되는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고도홍(2000). “로마자 표기법 시안에 대한 검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춘천시 토론회).
- 김기중(2000). “새 ‘국어의 로마자 표기안’을 지지한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광주광역시 토론회).
- 김명숙(2000). “영어철자 발음의 연계를 위한 연구”. 영어영문학 46. pp.383-408.
-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복문(1996). 한·일 로마자 표기의 비교연구. 무역출판사.
- 김세중(1997). “국어의 로마자 표기 실태”. 새국어생활 7-2. pp. 45-58.
- 김세중(1999). “표기법 개정의 당위성과 모음 표기 문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 자료집(발제문).
- 김세중(2000). “로마자 표기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시안의 내용”.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부산광역시 외 발제문).
- 김종훈(200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에 대한 의견”.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제주시 토론회).
- 김차균(200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에 대한 토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대전광역시 토론회).
- 김충배(1978). “우리말 로마자 표기 문제”. 언어 3-2. pp. 71-85.
- 도형수(1994). “한글 로마자 표기법의 변천과정 연구”. 언어논총 12. 계명대학교 언어연구소. pp. 159-198.
- 박강문(1999). “‘ㄷ’를 eo로 쓰지 말아야 할 이유와 e로 써야 할 이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 자료집(토론회).
- 박창원(1999). “‘어’의 로마자화에 대하여”.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

- 회 자료집(토론문).
- 배양서(1975). “로마자화와 영어화”. 명대 논문집 8. pp. 117-136.
- 배주채(1999). “로마자 표기법의 개정을 위하여”. 성심어문논집 20·21 합병집. pp. 81-100.
- 변명섭(2000). “국어의 로마자 표기 개정 시안에 대하여”.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제주시 토론문).
- 신경구(1989). “한글의 로마자 삼기”. 어학연구 25-3. 서울대 어학연구소. pp. 489-520.
- 신경구(2000). “로마자 표기의 원칙과 방향”.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광주광역시 토론문).
- 신경구·안수영(1993). “로마자삼기 원칙과 보기”. 어학교육22. 전남대 어학연구소. pp. 109-127.
- 신성균(2000).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에 대하여”.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춘천시 토론문).
- 양병선(200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에 대하여”.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전주시 토론문).
- 양병선(2001). “언어간 음자번역으로서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연구: 음절단위 영자표기법”. 언어학 9-3. 대한언어학회. pp. 25-50.
- 유명우(1999). “로마자 표기법 개정 토론회에 제안하는 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 자료집(토론문).
- 이규철(2000).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에 대하여”.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부산광역시 토론문).
- 이상규(200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 토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대구광역시 토론문).
- 이상익(198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제 종합 검토”. 언어와 언어학 7. 외국어대학교. pp. 9-42.
- 이상익(1982). “한국어 로마자 표기 '82”. 언어 7-1. pp. 165-198.

- 이상철(2000). “토론 내용 개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대구광역시 토론회).
- 이숙향(200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에 대한 의견”.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전주시 토론회).
- 이익섭(1997). “로마자 표기법의 성격”. 새국어생활 7-2. pp. 5-25.
- 이현복(1981).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제와 대책-”. 말소리 3. 대한음성학회. pp. 16-24.
- 전홍식(2004). “로마자 표기법의 기준 및 문제점 연구”. 영산논총 13. pp. 1-18.
- 정완식(2000). “파열음을 중심으로 살펴본 우리말의 로마자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대전광역시 토론회).
- 정희원(1997). “역대 주요 로마자 표기법 비교”. 새국어생활 7-2. pp. 27-43.
- 조두상(2000). “토론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부산광역시 토론회).
- 홍연숙(1999). “‘어’의 표기에 대하여”.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 자료집(토론회).

연구 책임자: 손중선

University of Kansas 언어학과 대학원 졸업(철학박사)

현 대구교육대학교 영어교육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허철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현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로마자 표기 현황 실태 분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 전화: 02-2669-9735 팩스 02-2669-9787
인쇄일	2007년 12월 26일
발행일	2007년 12월 29일
인 쇄	○○○ 문화사